

2024 - 현안 - 04

인천교육-2024-0263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자 : 임태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협력연구원 : 김수정(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사무관)

주현성(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조윤경(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파견교사)

연구보조원 : 이의연(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 정책 연구 소

## 자문위원

김성훈(인천과학고등학교)

김효영(연수여자고등학교)

도현정(인천중학교)

박희현(도림고등학교)\*

오유경(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이자영(인천고잔초등학교)\*

이정모(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이지연(인하대학교)

장진몽(인천청라중학교)\*

지영미(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지혜영(고려대학교)

홍세영(인천단봉초등학교)

\* 학부모 자문위원은 자녀의 소속 학교명을 표기함.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 이 연구보고서 파일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지원 - 교육정책연구소)

---

## 연구 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교육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체계성과 유의미성을 갖춘 학부모 교육 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체제 개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시·도교육청에서 완성도 높은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운영 주체가 각각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의 개편은 인천 학부모들의 교육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반이 됨. 또한, 기관 간 역할 분배와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행·재정적,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음.
  1.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과정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2.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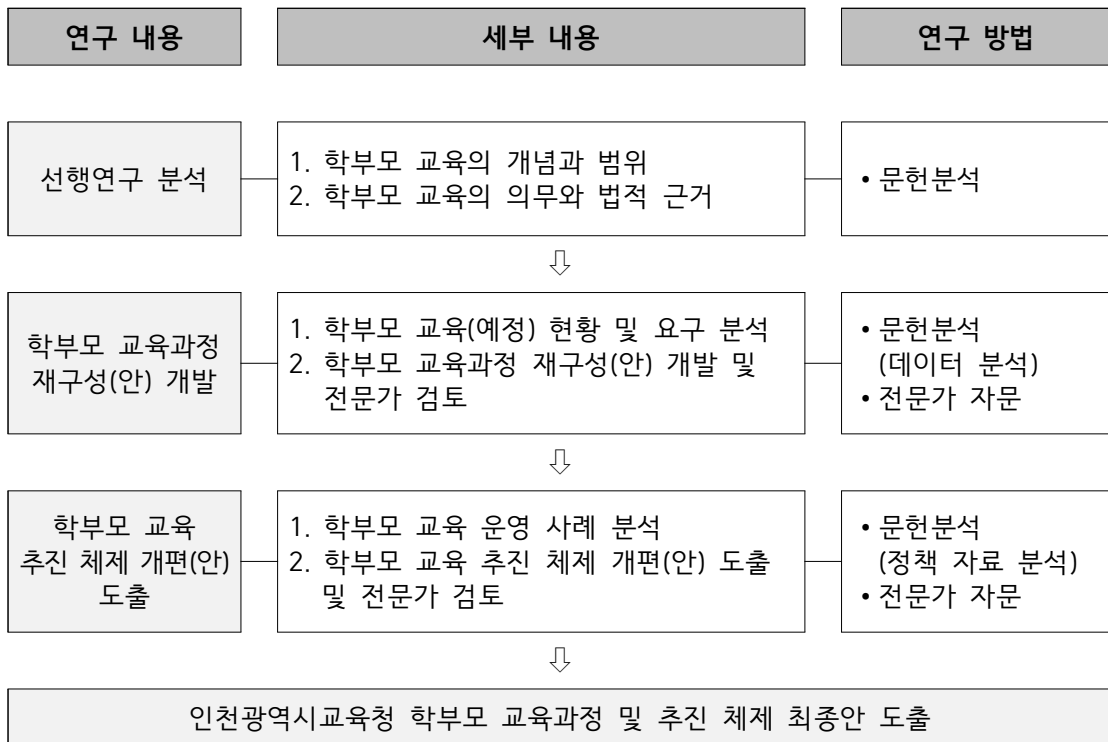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에서는 학부모 교육(예정) 현황 및 교육 요구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 영역×자녀의 발달단계’를 주축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제시함.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은 중복·

분산된 교육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학부모 교육 목표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열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 이어지는 연구 과정에서는 국내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별 특성과 주요 업무를 고려하여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을 제시하였음. 이때 추진 기관은 현재 학부모 교육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으로 한정하였으며,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음.

##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이며 이를 흐름에 따라 종합한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연구의 흐름

- 문헌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운영(예정) 현황,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 등을 연구 자료로 활용함. 이와 더불어 국내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는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은 ‘학부모 교육과정의 재구성(안)’과 ‘추진 체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함.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안의 적절성 평정과 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 이러한 의견은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 도출에 반영하였음.

### 3. 연구 결과

####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 2025년 기준 학부모 교육(예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6개 교육이 확인되었으며, 교육 대상자(공통) 및 교육 내용(일반 교양)의 쏠림 현상이 확인됨.
- 위와 같은 교육(예정) 현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은 ‘교육 영역×자녀의 발달단계’를 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총 6개 영역, 92개 교육을 제안함.
- 세부 교육 영역은 ‘학부모 의무교육, 교육제도와 정책 이해, 자녀 이해 및 건강(신체, 정신) 지원, 자녀 학업 및 진로·진학 지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의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구성됨.
-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구성은 ‘공통, 유아, 초등학생 저/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을 제외하고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9~14개 교육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구성함.
-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안점 중 하나로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같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추가로 구성하여 제시함.

## 나.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 운영(예정) 수는 본청 23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 기관 63개였음. 이중 직속 기관에 해당하는 평생학습관의 경우 61개의 교육 운영을 예정하고 있어 가장 주도적인 학부모 교육기관으로 확인됨.
- 타 시·도의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3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분석함. 학부모 교육의 운영 모델은 ‘네트워크 기반 캠퍼스 운영’, ‘학부모 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 ‘평생학습관의 전담 운영’으로 구분됨.
- 학부모 교육의 추진 현황 및 타 시·도교육청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 <표 1>과 같이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제안함.

<표 1>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

주체	역할과 기능
본청	학부모 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교육제도 및 정책 이해 교육 개발·운영
평생학습관	학부모 교육의 운영 주체로서 ‘학부모 대학’ 기능 수행
	3개 교육 영역에 대한 콘텐츠 개발·운영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자녀 학업 및 진로·진학 지원, 학부모의 자기 이해와 성장)
	학부모 학습통합관리시스템(LMS) 운영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 영역별 온라인 교육 탑재 및 이수 관리)
교육지원청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 개발·운영
	지역별 특화 교육 개발·운영
	대면 교육 중심의 지역 기반 서비스 운영

- 본 연구는 본청, 평생학습관,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를 제안함. 또한, 구체적으로 과업을 제시하여 교육 영역별 개발·운영의 방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의 주안점은 ‘통합된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교육 채널 일원화’임.

## 4. 연구 제언

### 가.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3가지 정책과 추진 전략을 <표 2>와 같이 제언함.

<표 2> 정책 제언 및 추진 전략

정책	추진 전략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재지정 및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교육과정 및 추진 현황을 기반으로 한 학부모 교육 전담 기관 재지정</li> <li>•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 교육 일원화</li> <li>• 전담 조직의 인력 추가 배치 및 전문성 강화</li> </ul>
‘학부모 대학’ 중심의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브랜드화</li> <li>• ‘학부모 대학’으로의 개편과 캠퍼스 확대</li> <li>•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의 질 제고</li> </ul>
학부모 교육 포털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교육 및 지원을 통합한 ‘학부모 교육 포털’ 구축</li> <li>• 학부모 교육 데이터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li> </ul>

-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은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운동 문화로서 학부모 교육이 확산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

### 나. 후속연구 제언

- 변화하는 교육제도나 패러다임에 따른 학부모 교육 내용 지속 개발
- 교육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탐색

<b>I</b>	<b>서론 _ 3</b>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b>II</b>	<b>이론적 배경 _ 11</b>	
	1.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범위 .....	11
	2. 학부모 교육의 의무와 법적 근거 .....	16
<b>III</b>	<b>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_ 23</b>	
	1. 학부모 교육 추진 현황 .....	23
	2.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와 교육과정 재구성 .....	27
<b>IV</b>	<b>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_ 51</b>	
	1.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 .....	51
	2.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과 활성화 .....	58
<b>V</b>	<b>결론 및 정책 제언 _ 73</b>	
	1. 결론 .....	73
	2. 정책 제언 .....	81
	<b>참고문헌 _ 85</b>	
	<b>부록 _ 87</b>	



〈표 Ⅰ-1〉 자문 조사 전문가 구성	7
〈표 Ⅱ-1〉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13
〈표 Ⅱ-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내용 체계 틀	14
〈표 Ⅱ-3〉 우리나라 학부모 법정 의무교육(가나다순)	17
〈표 Ⅱ-4〉 학부모 교육 권고 사항(법령, 가나다순)	18
〈표 Ⅱ-5〉 학부모 교육 권고 사항(인천광역시조례)	19
〈표 Ⅲ-1〉 2025년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교육 영역×자녀 발달단계)	24
〈표 Ⅲ-2〉 2025년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시기별)	25
〈표 Ⅲ-3〉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자료	27
〈표 Ⅲ-4〉 학부모 교육 영역별 주요 내용	27
〈표 Ⅲ-5〉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결과(학부모)	28
〈표 Ⅲ-6〉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결과(교사)	29
〈표 Ⅲ-7〉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결과(꿈디 아카데미 참여자)	30
〈표 Ⅲ-8〉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리	31
〈표 Ⅲ-9〉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안점	32
〈표 Ⅲ-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_초안	33
〈표 Ⅲ-11〉 ‘꿈디 교육과정’의 개요	36
〈표 Ⅲ-12〉 ‘학부모 교육과정-교육 영역’에 관한 자문 의견	37
〈표 Ⅲ-13〉 ‘학부모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에 관한 자문 의견	39
〈표 Ⅲ-14〉 교육 영역 × 자녀 발달단계별 교육 수 분배안	43
〈표 Ⅲ-15〉 ‘학부모 교육과정-교육 수 분배안’에 관한 자문 의견	44
〈표 Ⅲ-16〉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에 관한 종합 의견	46
〈표 Ⅳ-1〉 울산광역시교육청 든든학부모교육	53
〈표 Ⅳ-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2023년 기준)	54
〈표 Ⅳ-3〉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교육	55
〈표 Ⅳ-4〉 ‘주체별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자문 의견	61
〈표 Ⅳ-5〉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	65
〈표 Ⅳ-6〉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 의견	66
〈표 Ⅳ-7〉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안)’에 관한 종합 의견	68
〈표 Ⅴ-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_최종안	75
〈표 Ⅴ-2〉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	78

[그림 I-1] 연구의 흐름 .....	6
[그림 II-1] 학부모 교육의 개념도 .....	12
[그림 IV-1] 서울학부모배움과정 .....	52
[그림 IV-2]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_초안 .....	59
[그림 IV-3] 운영 주체에 따른 학부모 교육 분포(안) .....	60
[그림 V-1]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	79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는 말은 최근 온라인 웹과 SNS상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이야기 중 하나로,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삶에 관한 미숙함과 어려움을 잘 드러내는 문구이다. 누군가의 자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역할이 변화할 때, 모든 것이 처음인 부모들은 스스로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성장 요구에 따라 ‘부모’는 지속적인 교육 대상자 중 하나로 인식되며, ‘부모 교육’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화는 신체적 발달을 넘어 정서적·인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학령기(유·초·중·고 시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때 부모는 ‘학부모’로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통하며 자녀의 성장을 지지하는 교육 주체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학부모 교육이란 ‘자녀를 교육기관에 위탁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학업, 진로, 학교생활 등과 관련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정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및 교사와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식과 태도 및 구체적 방법을 배우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4). 해당 정의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이자 학교와 교사의 ‘동반자(교육시민)’,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평생학습자)’로서 존재하며, 학부모 교육의 범주 또한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22년 정책연구(강혜영 외, 2022)를 통해 학부모 교육의 내용 체계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꿈디 교육과정’은 학부모가 가지는 다양한 역할(평생학습자, 양육자, 교육시민)을 토대로 학부모의 교육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이러한 역할 상정은 학부모 교육의 정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skill)에 관한 학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부모 교육의 운영 실적 및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 교육 운영에 관한 개선 요구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신선희 외(2020)가 제시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운영의 주된 문제점과 결을 같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단위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기관 간 모호한 업무 분장과 조화로운 협력체계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학부모 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완성도 높은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운영 주체가 각각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의 개편은 인천 학부모들의 교육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기관 간 역할 분배와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행·재정적,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과정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2.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예정) 현황 및 요구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리에 따라 현행 학부모 교육을 통합·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은 중복·분산된 교육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학부모 교육 목표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열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부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검토한 주요 내용은 1) 주제 중심의 교육 영역 설정, 2) 자녀 발달에 따른 영역별 교육 내용 구성, 3) 현행 교육의 유지 여부, 4) 중복 교육의 폐지 등이다. 학부모 교육과정의 재구성 결과는 통합된 교육과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성의 주안점 중 하나로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구분하여 추가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 2)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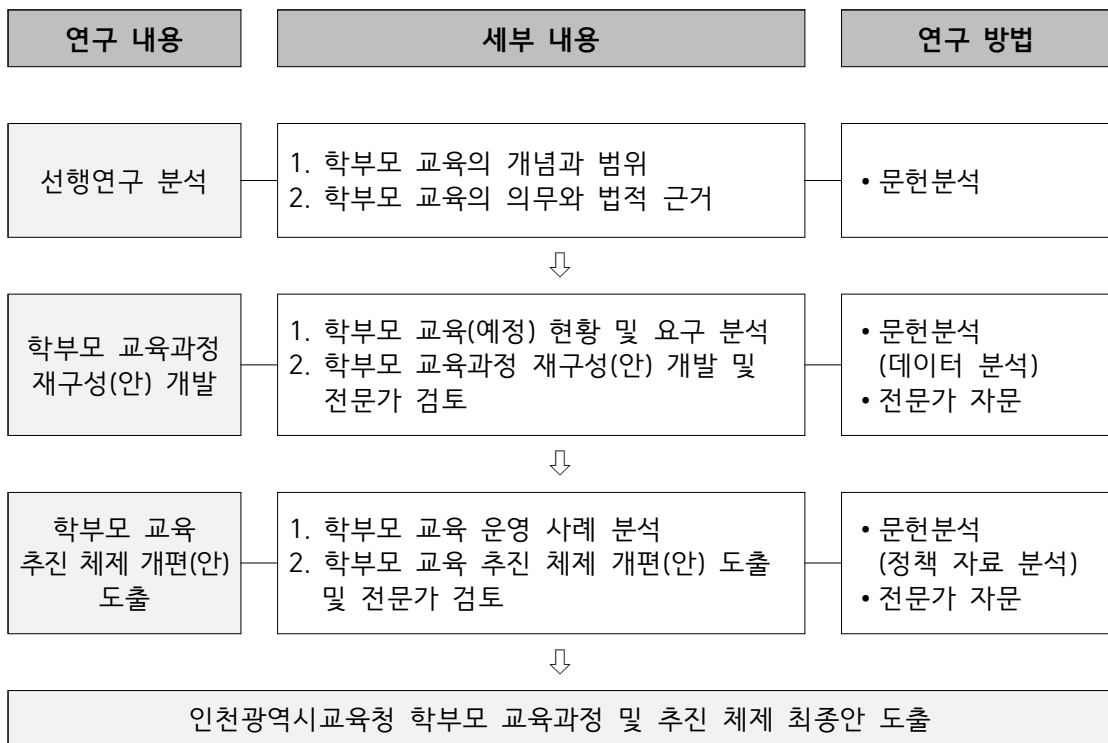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시한 ‘학부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부모 교육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별 특성과 주요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추진 기관의 범위는 현재 학부모 교육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으로 한정하며,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또한 연구진이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적절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 나. 연구 방법

### 1) 연구의 개괄적 흐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도출’이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흐름에 따라 종합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 2) 문헌분석

본 연구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과 추진 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이다. 이때 문헌의 범위는 선행연구 외에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운영(예정) 현황,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조사 자료 등이 있다. 연구진은 유관 부서의 협조로 연구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직접 수집한 1차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헌분석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국내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는 체계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3) 전문가 자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과 ‘추진 체제 개편(안)’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시된 안에 대한 적절성 평정과 더불어 다양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에 걸쳐 서면으로 수행되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구성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1> 자문 조사 전문가 구성

연번	구분	소속 <sup>1)</sup>	직위	이름
1	학부모 교육 전문가	인하대학교	교수	이00
2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지00
3	평생교육 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팀장	이00
4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오00
5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지00
6	교원	연수여자고등학교	교감	김00
7		인천단봉초등학교	교사	홍00
8		인천중학교	교사	도00
9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김00
10	학부모	인천고잔초등학교	학부모	이00
11		인천청라중학교	학부모	장00
12		도림고등학교	학부모	박00

1) 학부모의 소속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표기함.



## II

# 이론적 배경

1.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범위
2. 학부모 교육의 의무와 법적 근거



## Ⅱ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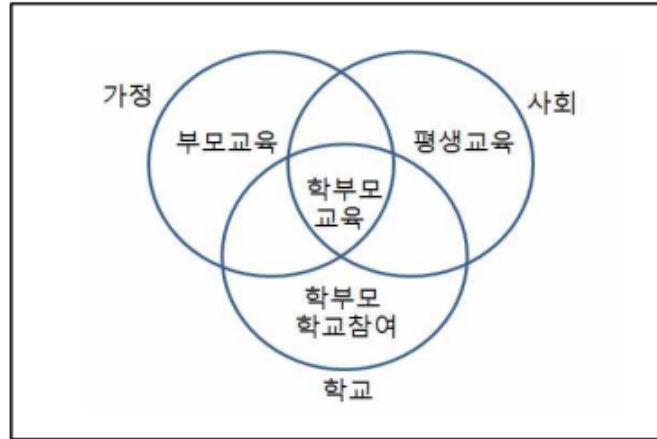
### 1.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범위

‘학부모 교육’이란 단어가 가지는 표면적 의미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이때 학부모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다. 학부모가 일반적 개념인 ‘부모’와 구분되는 까닭은 자녀가 학령기에 이르러 ‘학생’이 되면서 부여되는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 교육의 목적은 ‘학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 이르러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꾀하는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들로 비추어 볼 때 ‘학부모 역할’을 토대로 한 ‘학부모 교육’은 그 개념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서현석, 2014).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사 개념과의 차이와 접근 관점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부모 교육과 학부모 교육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과 평생교육 관점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홍후조 외(2013)는 학부모 교육이 부모 교육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자녀의 학교생활 및 주변인(또래, 교사 등)과의 관계 맺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두 개념 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학부모 교육의 내용 범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내 자녀를 바로 알고,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 및 환경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교사와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을 포함한다.

학부모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학부모는 단순히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평생학습자이자 성장하는 주체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학부모 교육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연대를 요구하고, 나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부모들이 점점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서현석(2014)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의 개념도를 재구성하여 다음 [그림 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1] 학부모 교육의 개념도(서현석, 2014:369)

위 그림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은 가정, 사회, 학교의 교육적 요구를 담고 있는 '부모교육, 평생교육, 학부모 학교참여'의 교집합에 놓인 개념이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에 따라 학부모 교육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4)'으로 정의되며,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지게 된다. 즉, 학부모 교육은 세 가지 관점이 통합되는 지점에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교육 주체로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또한 주요한 교육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학부모 교육이 포괄적인 부모 교육과 구분되며, 이에 따른 교육 목적 또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학부모 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후조 외(2013)는 학부모와 교원을 포함한 교육관계자 68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표 II-1>과 같이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표 II-1〉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홍후조 외, 2013:193)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부모·가정 (학부모)	부모의 역량 강화	교양 및 상식 함양
		대인 역량·대화 역량 강화
	가정의 교육력 강화	건강한 부부관계 및 가정의 교육적 역할 증진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행복 증진
자녀·자녀 친구 (학생)	특성 이해	건강 증진
		정서발달 이해
		인지발달 이해
	생활습관 형성	바른생활습관 형성
		학습습관 형성
	경험 공유	문예체 체험활동
		진로·직업 체험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문제 대처	학교폭력·왕따 대처
		약물·반사회행동 대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학교·교사 (학교)	학교 교육활동 이해
방과후·주말·방학 프로그램 활용		
교사와 협력		평소생활 협의
		문제상황 협의
교육 참여		교육 참여와 재능 기부
정책 이해		교육제도 및 교과부·교육청의 교육 정책 이해

3개 대영역-10개 중영역-21개 소영역(강좌 주제)으로 구성된 학부모 교육 내용 체계에서는 크게 학부모, 학생, 학교로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하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해당 연구가 게재된 후 10년 이상이 흐른 현시점에도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었는데, 가령 자녀의 발달에 따른 특성 이해나 점차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처 문제 등이 그러하다. 또한 ‘교사와 협력’이나 ‘교육 참여’, ‘정책 이해’는 학부모를 학교교육 운영의 주체로 상정하는 교육 기조나 최근 교육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교육구성원 간 갈등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주도하여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학부모에 관한 정책연구(서정화 외, 2019; 소미영 외, 2019; 오재길 외, 2016; 이영임 외, 2015)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주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 운영 체제 제시에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강혜영 외(2022)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학부모 교육의 내용 체계를 다음과 <표 II-2>와 같이 고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표 II-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내용 체계 틀

영역	요인	필수 구분	학교급 구분	주요 내용
I. 평생학습자 로서 학부모 교육 영역	(1) 자기 이해와 계발	필수	공통	자기 성향 및 감정 이해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의 이해
				여가 및 취미 활동
				기초소양 함양(인문학, 과학, 문화예술, 시민성 등)
(2) 사회 변화의 이해와 적응	심화	공통	정보통신기술 및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정보통신 보안 및 윤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보통신기기 중독 및 범죄피해 예방	
(3)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실천	필수	공통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이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4) 인권 감수성 함양	필수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성인지감수성 함양	
			아동·청소년 학대와 가정폭력의 이해와 대응	
			아동·청소년 인권 및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와 적용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II. 주양육자 로서 학부모 교육 영역	(5) 자녀 이해 및 건강한 관계 맺기	심화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자녀의 성향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자녀의 성장에 따른 학부모로서 자신의 성장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 및 소통
	(6) 자녀의 건강 관리 지원	선택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자녀의 신체 및 정신 상태 이해와 정상 발달지원
				자녀의 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와 지원
	(7) 자녀의 학습 지원	필수	1) 공통 2) 학교급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지원
				자녀가 평생학습자로서 학습 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8) 자녀의 진로와 진학 지원	필수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자녀의 진로 탐색 활동 지원
				자녀의 진학 정보 수집 및 준비 지원
	(9) 자녀의 사회적 기술 함양 지원	심화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자녀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지원
자녀의 또래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 원인 이해와 해소 지원				
(10) 안전한 학습 환경 이해와 지원	필수	공통	자녀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건강 지원	
			자녀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이해와 지원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예 : 학교폭력 등) 및 비행 행동에 대한 예방·이해와 대처(응) 지원	

영역	요인	필수 구분	학교급 구분	주요 내용
Ⅲ. 교육시민 으로서 학부모 교육 영역	(11) 상호 존중하는 가정 문화와 시민 의식 함양	심화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가정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 문화 형성
				가정 구성원의 유대감과 시민의식 함양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이해와 실천
	(12) 교육제도와 정책의 이해 및 참여	필수	공통	교육제도 및 국가 수준 교육정책의 이해와 참여
				인천 교육정책의 이해와 참여
				단위학교 비전 및 교육활동 이해와 참여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이해와 참여
	(13)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 권리와 의무	선택	1) 공통 2) 유.초저 3) 초고중고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이해와 공교육 활성화 참여
				학부모 단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
				학생, 교직원과 함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연대
	(14) 학부모 자치의 이해와 실천	선택	공통	학부모 자치에 대한 이해
				학부모 자치를 위한 실천
	(15) 학부모가 만드는 학부모교육	선택	공통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만드는 교육

위 표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의 영역은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기준으로 ‘평생학습자, 주양육자, 교육시민’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교육 목표가 차별화됨과 동시에 주요 교육 내용 또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자로서 학부모 교육은 자기 이해 및 계발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만, 주양육자로서의 학부모 교육에서는 자녀의 발달 및 관계 형성, 진로 및 진학 지원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 한편, ‘교육시민’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교육제도 및 정책 이해’와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등으로 교육 기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학부모 교육의 주안점은 학부모 교육이 단순히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보다,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가 존재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 교육과정의 설계나 추진 체제 정립에 있어 교육 대상자인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학부모 교육’이 일반적인 ‘부모 교육’이나 ‘평생교육’과는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유관 영역과의 중복보다는 학부모의 역할에 따른 충실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 2. 학부모 교육의 의무와 법적 근거

학부모 교육이 가지는 의의와 학부모의 역할 확대와는 별개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지정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기란 쉽지 않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4; 이강이 외, 2013)의 결과에서도 학부모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학부모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연 1회(62%)가 가장 많아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선행연구에서 학부모들은 교육 참여의 효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이 제공되길 바라는 요구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부모 교육 참여 동기와 만족도 간의 불일치는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학부모가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령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의 의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령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학부모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우리나라 학부모 법정 의무교육(가나다순)

교육명	관계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법이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배경이 있었으나, 현재에도 학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경우 최근 개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023. 9. 27. 신설)’을 교육부장관의 의무로 규정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 현안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를 지는 주체가 ‘학교의 장’이므로 학부모들의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단위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교육 내용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향후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법정 의무를 가지지는 않으나 법령 수준에서 ‘권고’하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도 있다. 다음 <표 II-4>는 직접적으로 교육 운영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거나, 교육 대상자로 학부모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넓은 의미에서 학부모 교육의 내용으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한 것이다.

〈표 II-4〉 학부모 교육 권고 사항(법령, 가나다순)

교육명	관계 법령	내용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략)…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학부모 교육의 내용으로 권고되는 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청렴교육’이며,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교육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가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이나 자살 시도 등에 대한 보편적 예방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학부모 교육으로 운영하는 경우 학부모 본인과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

한편,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청렴교육 등은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다. 이는 점차 학교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

없이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교육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운영 자율성이 높고 ‘권고’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다음 <표 II-5>는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통해 권고하는 학부모 교육 내용이다.

<표 II-5> 학부모 교육 권고 사항(인천광역시조례)

교육명	관련 조례	내용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33조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8조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은 ‘학교구성원 인권교육’과 ‘학생 도박 예방교육’으로, 조례에 따른 교육 대상의 범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의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교육의 대상이 학생을 양육하는 보호자(학부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례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학생인권’으로 한정되어 온 교육 내용은, ‘학교구성원’으로 확대되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인권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학생 도박 예방교육’은 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 내용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도박이나 도박문제의 발생 징후 등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 교육 내용으로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자녀가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지도해야 하는지를 교육함으로써 즉각적인 해결 지원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는 ‘학생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곧 ‘학부모가 함께 알아야 할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학부모 교육 내용의 범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학부모 교육의 의무와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의 교육’으로 학부모 교육에 접근할 때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논의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았다. 또한, ‘의무교육’에서 제시하는 의무가 궁극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에 지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본청)-교육지원청-직속 기관-단위학교’로 이어지는 학부모 교육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 III

##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1. 학부모 교육 추진 현황
2.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와 교육과정 재구성







##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 1. 학부모 교육 추진 현황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체계를 연구한 강혜영 외(2022)는 학부모 교육을 ‘취학 대상 아동 또는 재학생의 실질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부모로 한정하지 않음)에게 교육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전체(각종 자료 개발 및 보급 등도 포함)’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학부모 교육 내용은 ‘성인 학습자, 주양육자로서 학부모, 교육시민으로서 학부모’를 대영역으로 14개 하위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도 165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정책연구는 수행 당시 ‘인천광역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직접적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강혜영 외(2022)의 연구 결과는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최적화된 분석 틀을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협조로 수집한 ‘2025년 학부모 교육(예정) 현황’의 분석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자료로 수집한 ‘예정된 학부모 교육’의 수가 총 106개로, 세부 내용을 분석 준거로 하는 경우 준거 수가 실제 교육 수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분석 수준은 14개의 하위 요인을 교육 영역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자녀의 발달단계와 운영 시기를 교차 분석 준거로 적용하였다.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교육은 기관별로 본청 23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 기관 63개(평생학습관 61개, 유아교육진흥원 1개, 동아시아국제교육원 1개)가 운영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106개 교육을 내용에 따른 주제 범주와 자녀의 발달단계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Ⅲ-1〉 2025년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교육 영역 × 자녀 발달단계)

교육 영역 \ 자녀 발달단계	공통	유	초저	초고	초	중	고	특수	총계
자녀의 발달 및 건강 이해와 관리	9	-	1	1	1	1	-	1	14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11	1	-	-	3	6	4	2	27
교육제도와 정책의 이해 및 참여	4	-	-	-	-	-	-	-	4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	-	-	-	1	1	-	-	2
학부모 자치의 이해와 실천	6	-	-	-	-	-	-	-	6
자기 이해 및 계발	25	1	-	-	-	-	-	4	30
일반 교양 및 취미	13	-	1	-	2	1	-	-	17
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	-	2	5	3	-	-	-	-	10
총계	68	4	7	4	7	9	4	7	110 <sup>2)</sup>

위 표에 제시된 교육 영역 중 ‘일반 교양 및 취미’와 ‘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은 강혜영 외(2022)에서 제시하지 않은 범주로, 세부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진이 새로운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자녀의 발달 및 정신 건강 이해’는 본안에는 ‘자녀 이해 및 건강한 관계 맺기’, ‘자녀의 건강 관리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실제 개설 예정인 교육의 경우 두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통합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또한 ‘자녀의 학습 지원’, ‘자녀의 진로와 진학 지원’을 통합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교육의 분포를 살펴보면, 운영 예정인 교육의 수는 ‘자기 이해 및 계발 >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 일반 교양 및 취미’ 순으로 많았으며, ‘교육제도와 정책의 이해 및 참여,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학부모 자치의 이해와 실천’은 총 교육 수가 10회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예정된 교육의 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양상은 현재 예정된 학부모 교육이 ‘평생학습자로서 학부모 교육’에 치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자녀와 관계된 교육 또한 ‘학업 및 진로·진학’에 집중되어 있음이 잘 드러난다.

2) 4개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중복 카운트함(106개+4개=110개 교육).

한편, 자녀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육 운영 예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교육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내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별도로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이 편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급별로 교육 수를 확인하면 초등학교는 비교적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전체’로 세분되어 18개의 교육이 예정된 반면, 다른 학교급의 경우 유아 4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4개, 특수교육대상자 7개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체계화된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기별에 따라 교육이 쏠리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정된 교육 현황을 시기별로 분석한 것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2025년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시기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연중(9)												9	
상반기(4)						하반기(4)						8	
-	-	5	8	9	9	12	9	11	5	11	6	85	
			2									2	
			1										1
									1			1	
총 계												106	

현재 2025년에 운영 예정인 학부모 교육은 비교적 시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교육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 운영 특성상 계획을 수립하는 1~2월을 제외한 3~12월에는 배정된 교육의 수가 편향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교육 일정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달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106개 중 85개로 예정된 교육 중 다수가 단기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꿈디 교육과정’이라는 본청 수준의 학부모 교육과정이 있으나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주체별로 개별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학부모 교육 추진에서는 교육 간 유기성과 체계성을 갖춘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 대상자 측면에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내용 구성보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양’의 내용을 주로 다루어,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영역별로 고른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분포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18개였으며, 유아와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각 4개로 교육 수의 쓸림이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제공받는 교육 기회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의미하며, 향후 학부모 교육과정 설계 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수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최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평가받는 ‘느린 학습자’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별도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과는 구분되며, 보편적 발달단계와 차이를 보이는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 운영 시기와 관련하여 월별 교육 수의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특강’ 형태로 1일 참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교육의 계열성 확보가 미흡함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속성과 계열성이 필요한 교육의 경우 운영 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과 적절성 검토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 2.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와 교육과정 재구성

### 가.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 다수의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총 5개이며, 해당 자료의 정보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자료

자료명	주요 내용
학부모 교육 온라인 콘텐츠 요구조사 (학부모, 교원 총 2건)	6개 교육 영역 중 관심 영역, 자율 의견
꿈디 아카데미 교육 개설 요구조사 (7~9기, 2023~2024년 총 3건)	향후 학부모 교육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주제 및 교육 내용, 개방형 조사

먼저 ‘학부모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요구조사에서는 주요 정책 및 주제에 기반한 6개 교육 영역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때 6개 영역은 하위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교육 영역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 III-4>와 같이 제공되었다.

<표 III-4> 학부모 교육 영역별 주요 내용

교육 영역	주요 내용
안전·안심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보호 등
시민성 함양	디지털문해력, 평화, 인권 등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성장단계별 대화법, 발달 특성 이해 등
인성·생활 지도	자녀의 올바른 인성 함양, 효행 등
학습 지원	선행학습예방,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
진로·진학 지원	상급학교 이해, 자녀의 진로 탐색 이해 등

조사 대상은 학부모와 교사로 조사 참여자는 학부모 268명, 교사 97명이었다. 먼저 학부모들의 응답을 ‘교육 영역×자녀 학교급’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Ⅲ-5>와 같다.

<표 Ⅲ-5>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결과(학부모)

교육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자녀 <sup>3)</sup>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전·안심 교육	63	53.8	23	56.1	22	47.8	31	49.2	139	52.1
시민성 함양	18	15.4	10	24.4	13	28.3	14	22.2	55	20.6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66	56.4	19	46.3	10	21.7	35	55.6	130	48.7
인성·생활 지도	78	66.7	30	73.2	27	58.7	37	58.7	172	64.4
학습 지원	54	46.2	14	34.1	15	32.6	20	31.7	103	38.6
진로·진학 지원	61	52.1	27	65.9	39	84.8	53	84.1	180	67.4
총계	340	-	123	-	126	-	190	-	779	-

\* 해당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을 포함함.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교육 요구를 보였는데, 먼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성·생활 지도 >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 안전·안심 교육’ 순서로 높은 교육 요구를 보였다. 한편,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성·생활 지도 > 진로·진학 지원 > 안전·안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진로·진학 지원 > 인성·생활 지도, 안전·안심 교육’ 순서로 관심이 높아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다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이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이 혼합된 결과를 보였는데, ‘진로·진학 지원 > 인성, 생활지도,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순서로 관심도가 높았다. 전체 경향성에서는 중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 요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녀가 재학한 학교급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감에 따라 인성, 생활지도에서 진로·진학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풍토를 알고 있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 복수의 학교급에 재학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는 ‘다자녀’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함.

학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즉, 요구조사의 결과를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가정 교육’의 중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학교급별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표 Ⅲ-6>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결과(교사)

교육 영역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전·안심 교육	13	23.6	5	22.7	6	30.0	24	24.7
시민성 함양	7	12.7	1	4.5	3	15.0	11	11.3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44	80.0	16	72.7	10	50.0	70	72.2
인성·생활 지도	34	61.8	8	36.4	7	35.0	49	50.5
학습 지원	11	20.0	5	22.7	2	10.0	18	18.6
진로·진학 지원	33	60.0	15	68.2	18	90.0	66	68.0
총계	142	-	50	-	46	-	238	-

\* 해당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을 포함함.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였던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와 달리 교사 대상 조사의 결과는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부모 교육의 주요 영역은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인성·생활지도, 진로·진학 지원’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는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에, 고등학교 교사는 ‘진로·진학 지원’에 관한 교육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공통으로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육과정이 자녀의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에서 운영하는 ‘꿈디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요구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꿈디 아카데미 7~9기에 참여한 학부모들로, 기수별 응답자는 7기 87명, 8기 98명, 9기 149명이었다. 해당 조사는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연구진은 앞선 절에서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코딩하였다.



〈표 Ⅲ-7〉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 결과(꿈디 아카데미 참여자)

교육 영역	7기(2023년)		8기(2023년)		9기(2024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의 발달 및 건강 이해와 관리	29	33.3	24	24.5	42	28.2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21	24.1	19	19.4	30	20.1
교육제도와 정책의 이해 및 참여	0	0.0	1	1.0	2	1.3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4	4.6	11	11.2	28	18.8
학부모 자치의 이해와 실천	1	1.2	0	0.0	2	1.4
자기 이해 및 계발	25	28.7	37	37.8	45	30.2
기타	7	8.1	6	6.1	0	0.0
총계	87	100.0	98	100.0	149	100.0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꿈디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기수와 관계없이 ‘자녀의 발달 및 건강 이해와 관리,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자기 이해 및 계발’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자녀에 관한 교육 내용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학부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계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 이해 및 계발에서는 구체적인 응답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과 ‘트렌드와 경제’에 관한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결과로 2024년에 교육을 받은 꿈디 아카데미 9기 참여자들의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는데, 세부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일어난 교권 및 학습권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시사점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들은 ‘자녀의 발달 및 건강 이해와 관리’,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자기 이해 및 계발’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요구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이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자신의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도 구성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는 자녀의 발달단계 따라 다르므로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의 차별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의 발달이나 인성·생활 지도에 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이러한 관심이 ‘진로·진학 지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주된 관심 영역이 변화하는 것과도 일치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함을 함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따라 다음 항에서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학부모 교육 운영의 현황을 재구성하여 ‘인천광역시 학부모 교육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부모 교육과정(안)’은 교육과정의 개발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 내용을 도출하여 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의 관점에서 현재 운영이 예정된 학부모 교육을 교육 영역과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배치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이와 같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중복 교육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교육을 추가 삽입하게 되므로 ‘신설·유지·삭제, 확대·축소’에 관한 합의 절차를 거친다. 연구진들은 ‘교육 영역×자녀의 발달단계’라는 큰 교육과정의 틀을 결정하고, 다음 <표 III-8>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을 도출하였다.

<표 III-8>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리

원리	내용
체계성	모든 자녀의 발달단계 및 하위 교육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하며, 자녀 및 학부모의 성장 발달에 따른 체계성을 갖추어야 함.
계열성	두 개 이상의 연속되는 교육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유의미성	교육 내용은 학부모의 요구를 존중하여 유의미해야 하며, 개인의 흥미, 요구, 필요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효용성	교육 내용은 학부모가 시민, 생활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쓸모가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위의 네 가지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리는 앞서 수행한 학부모 교육 운영 예정 현황과 유관부서의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계성과 계열성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표 Ⅲ-9>와 같은 주안점을 두었다.

<표 Ⅲ-9>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안점

주안점	내용
자녀의 발달단계 반영	자녀의 발달단계를 '유아,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구성함.
특별교육 대상자 학부모 분리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특별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성함.
정책 이해 교육 확대	'정책 이해' 영역에서 주요 정책 브랜드와 현안을 주제로 공통 교육을 구성함.
신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건강'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영역에서 발달단계의 특성 이해와 신체,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함.
학업 지원 기본 구성	'자녀의 학업 지원'에서 발달단계별로 '진학 준비-학교 적응-진로 선택'을 기본 구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함.
교사-학부모 관계 맺기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서 협력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여 '교사-학부모 관계 맺기'를 주요 내용으로 추가 구성함.
학부모 성장을 위한 교양 과정	'학부모의 성장'은 미래교육, 민주시민역량, 양육코칭 등 교양 성격의 교육 내용을 구성함.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 원리를 적용하고, 7가지 주안점을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은 다음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_초안

영역	대상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sup>4)5)</sup>							7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교육							
		인권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도박예방교육							
정책 이해		교육정책·제도 이해	유보통합 이해						7
		인천교육 트렌드	유초연계 이음교육 이해						
		읽건쓰 역량 강화				-			
		결대로자람학교 이해							
		느린 학습자 이해 (난독증, 경계선지능 등)							

4) 음영 처리된 교육은 현재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 교육임.

5)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임.

영역	대상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사회·정서학습 이해	부모와 함께 정립하는 올바른 성관념(성교육)						느린 학습자 정서 지원	32 (중복포함)
	심리·정서 안정 이해	부모와 관계 맺기 - 가정의 문화 형성과 역할 수행(안정 애착과 결핍)						장애 이해와 발달	
	학습 장애 이해 (ADHD 등)	자녀의 사회생활 - 또래 및 대인 관계 정립(갈등과 해소)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과 소속감	
	안전 교육 지도법 (일상, 온라인 등)	유아 발달 특성	초등학생 발달 특성(저)	초등학생 발달 특성(고)	중학생 발달 특성	고등학생 발달 특성	-		
	-	발달 지연 이해 (언어, 신체 등)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문제 행동과 가정 지도		중학생 문제행동과 가정 지도	고등학생 문제행동과 가정지도	-		
자녀 학업 지원	신입생학부모 교육 (예비 초·중·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학교급별 중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안내	28 (중복 포함)
	영재교육의 이해	-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중단예방			느린 학습자 학업 지원		
	학습법 이해 (자기주도, 메타인지)	초등학교 진학 준비	초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중학교 진학 준비	중학교 생활 적응 안내	고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다문화가정의 학업 지원		
	학습 습관 형성	-	-	-	자유학기제와 학업 관리	고교학점제 안내	-		
	-	-	-	-	고등학교 진학 준비(일반)	대학입학전형 안내	-		

영역	대상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자녀 학업 지원		-	-	-	-	고등학교 유형 이해와 진학	대학입학 준비 전략	-	-
		-	-	-	-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직업 이해와 진로 선택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교참여지원사업 안내	자녀 양육을 위한 학교와 협력적 관계 맺기 (학교 운영 참여, 교사와 관계 맺기 등)						-	13 (중복포 함)
	학부모 단체 이해와 참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부모 역할	-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이해와 참여						
	학부모 청렴교육								
학부모의 성장	미래교육 이해 (디지털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						5	
	민주시민 역량 강화								
	성인지감수성								
	심리·정서 건강 관리								
	인성교육과 양육코칭								
교육 수	29	10	9	10	14	14	6	92	

### 1) 학부모 교육 영역의 설정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위하여 ‘인천 학부모 꿈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비전, 추구하는 학부모상(교육 목표), 교육과정의 구성’을 다음 <표 III-1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III-11> ‘꿈디 교육과정’의 개요

구분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가 인천의 미래교육, 인천교육의 꿈을 함께 디자인하다!</li> </ul>
추구하는 학부모상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li> <li>• 자녀가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돌보고 지적·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양육자</li> <li>• 인천교육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연대하는 교육시민</li> </ul>
교육과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과정 : 안전안심 교육지원, 시민성 함양, 인천교육 정책의 이해, 학부모 참여 이해</li> <li>• 심화과정 : 부모·자녀 관계역량 강화, 부모역량 강화, 진로진학 지원, 학습 지원,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 인성·생활지도</li> </ul>

‘꿈디 교육과정’은 학부모 교육을 운영의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운영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한 106개의 학부모 교육이 모두 ‘꿈디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꿈디 교육과정은 ‘꿈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현행 꿈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진은 학부모 교육과정의 재구성 근거를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추구하는 학부모상(교육 목표)과 연계한 하위 교육 영역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과정 중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 영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부모의 교육 요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과 ‘건강(정서, 신체)’의 교육 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모·자녀 관계역량 강화’, ‘부모역량 강화’, ‘학습 지원’ 등 모호하거나 층위가 맞지 않는 교육을 다듬어 재구성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을 통해 6개의 교육 영역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은 다음 <표 III-12>와 같았다.

〈표 Ⅲ-12〉 ‘학부모 교육과정-교육 영역’에 관한 자문 의견

교육 영역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익히는 ‘법정의무교육’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36	0.82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7		
인천교육 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참여를 위한 ‘인천교육 정책 이해’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09	0.99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4		
	매우 적절함	6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이해 및 건강(신체, 정서) 지원’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5	0.71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매우 적절함	8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학업 지원’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36	0.82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2		
	매우 적절함	7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건전한 관계 맺기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5	0.52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매우 적절함	7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학부모의 성장’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09	1.05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2		
	매우 적절함	6		

## [주요 자문 의견]

- (전체) 기존 교육 영역 및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긍정적임. 특히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의 영역이 신체, 정서 지원으로 구분되고 학교급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점이 우수함.



- (전체) 각 교육 영역이 학부모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잘 구성되었음.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역을 의무교육에 구성하였고, 인천교육정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이 잘 반영됨. 학부모의 성장을 위한 자녀 발달단계별 교육과 변화하는 교육에 대한 영역이 들어 있어, 전반적인 학부모 교육과정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전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새로운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나 그만큼 경직된 부분도 존재함.
- (전체) 제시된 학부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이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력적인 이름짓기를 할 것을 제안함.  
예) ‘학교는 처음이시죠?’ 교육과정 / ‘우리 아이 진짜 공부하는 법 알기’ 교육과정
- (구성) 공급자 중심(기관)의 교육과정이 아닌 수요자 중심(학부모)의 교육과정으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학부모 측에서는 교육의무가 없는 의무 교육과정을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영역으로 흡수하면 좋을 것 같음(두 영역 간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검토해야 함).
- (운영)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 시 전체 영역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도성과 개방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이러한 교육 과정이 편성되면 단위학교가 하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의무교육)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의무화로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함. 다만, 의무화라는 것이 상호 간에 이해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교육과 사례를 들어 이해하는 기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책 이해) 정책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교육 구성 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학부모 성장)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웰빙을 위한 학부모의 성장’이라는 영역과 실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편성된 내용이 ‘웰빙’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에 좁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학부모 성장’은 프로그램 편성 시 다양한 요구와 내용으로 구성되길 바람.
- (학부모 성장) ‘학부모의 성장’ 영역이 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교육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 예를 들어 학부모의 성장 영역- 심리 건강 관리, 인성교육과 양육교칭은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보임. ‘학부모의 성장’이 시민으로서 학부모의 성장인지, 학생의 지원자로서의 학부모의 성장인지 다소 애매함.

연구진이 제시한 학부모 교육과정의 교육 영역은 전체 영역에 대한 적절성 평정 결과가 평균 4.0을 상회하여 대체로 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역 설정 전반에 관한 자문 의견에서는 ‘자녀 이해 및 건강(신체, 정서) 지원’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의무교육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재구성하여 제시된 학부모 교육과정의 경우 체계성을 확보했다는 강점이 있는 한편, 교육의 구성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직되었다는 우려와 추가적인 이수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이 추가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또한 교육의 주체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희망 강좌를 포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현재 제시된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목’으로 이해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후술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다양한 과목이나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성장’ 영역과 관련하여 영역 구성의 목표에 맞게 ‘웰빙(well-being)’을 지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부모의 성장’이 시민으로서 학부모의 성장인지, 주양육자로서 학부모의 성장인지를 명료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초 연구진이 목표한 ‘학부모의 성장’은 ‘자기 이해와 계발’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전체 영역 중 ‘평생학습자, 교육시민으로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구성하고 있어 추후 교육 영역의 명칭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 2) 학부모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

앞서 연구진은 학부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적용한 원리와 주안점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항을 작성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정을 요청하였다. 해당 내용에 관한 자문 결과는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학부모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에 관한 자문 의견

교육 영역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자녀의 발달단계를 ‘유아,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42	1.06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2		
	매우 적절함	8		

교육 영역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특별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8	0.53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5		
	매우 적절함	7		
'정책 이해' 영역에서 주요 정책 브랜드와 현안을 주제로 공통 교육을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25	0.63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7		
	매우 적절함	4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영역에서 발달단계의 특성 이해와 신체,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75	0.48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9		
'자녀의 학업 지원'에서 발달단계별로 '진학 준비-학교 적응-진로 선택'을 기본 구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0	0.71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7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서 협력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여 '교사-학부모 관계 맺기'를 주요 내용으로 추가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33	0.67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6		
	매우 적절함	5		
'학부모의 성장'은 미래교육, 민주시민역량, 양육코칭 등 교양 성격의 교육 내용을 구성함.	전혀 적절하지 않음	1	3.92	1.33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3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5		

[주요 자문 의견]

-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해져 이로 인한 학부모의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추가 된 점이 긍정적임.

- (전체) 특별 대상자에 학교밖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및 자기 성장 교육도 필요함.
- (전체) 발달단계는 학부모 입장에서 유아를 '유아'와 '예비 초등'으로 구분하길 희망함.
-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업 지원, 자녀와의 소통 외에는 교육을 위한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 자녀의 발달단계를 중·고등학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전체)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춘 세부 내용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특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적절함. 그러나 '자녀의 학업 지원'과 '학부모의 성장'과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정책 이해) 자녀의 발달단계별 구분과 특별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성하여, 학부모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루 반영한 것은 매우 적절함. 주요 정책이 추구하는 브랜드와 현안은 인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학교의 교육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구성되어야 함.
- (정책 이해) 정책 이해 영역의 정책 브랜드와 현안을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가 이해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 구성 시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함.
-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기존의 교육과정을 공통과 학교급별 교육으로 개편한 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교급별로 적절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 우수함.
- (자녀의 학업 지원) '자녀의 학업 지원' 영역은 발달단계별로 학업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점에서 적절함.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점과 선택형 운영이 중요하며, 진로 교육은 중학교 이전부터 도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교 참여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교사-학부모 관계 맺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 자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배움과 생활의 공간인 학교에서 실제 삶의 힘을 키우도록 학부모가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 목적이라 생각함.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으나 두 주체 간 관계 개선이 학부모 학교 참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봄.
- (학부모 성장) 어떤 것을 '학부모 성장'으로 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소양, 창업정신 등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갖추기를 희망하는 소양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함.
- (학부모 성장) 학부모의 성장은 미래교육, 민주시민역량, 양육 코칭 등 교양 성격의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는 좋은 취지와 목적은 긍정적이거나 학부모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제시한 교육을 받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음. 학부모 자신의 가치와 학부모의 역할 등 자신이 처한 배경을 인지하고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훈련도 병행할 것을 제안함.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안점에 관하여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부 영역별로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은 평균 4.75로 영역 구성의 주안점이 매우 적절하다고 인식되었으며, ‘학부모의 성장’은 평균 3.92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세부 의견에서는 학부모 성장이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갖추기를 희망하는 소양’과 ‘학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세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자문 의견이 타당하며, 이를 학부모 교육과정 최종안에 반영하여 해당 교육 영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정책 이해’ 교육 영역에 관한 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천의 교육정책에 관한 교육 편성은 ‘인천의 교육 방향성을 알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학부모 개인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의견 사이에 쟁점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학부모 대상의 요구조사에서 정책에 관한 교육 요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와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 구성 시 일방적인 정책 안내보다 ‘주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며,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 영역×발달단계별 교육 수 분배안

2025년을 기준으로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학부모 교육은 분석 결과 자녀의 발달단계를 반영하지 않는 ‘공통’ 교육과 ‘일반 교양’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새로 정립한 ‘교육 영역×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육 영역 및 발달단계별 균형성을 고려한 교육 수 분배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위해 제공한 참고 자료와 자문 결과 및 추가 의견은 다음 <표 III-14>, <표 III-15>와 같다.

〈표 Ⅲ-14〉 교육 영역 × 자녀 발달단계별 교육 수 분배안

[현행] 교육 영역 × 자녀 발달단계별 교육(수)

교육 영역 \ 발달단계	공통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계
			저	고	공통				
자녀 발달 및 건강 이해	9	-	1	1	1	1	-	1	14
자녀 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11	1	-	-	3	6	4	2	27
정책 이해	4	-	-	-	-	-	-	-	4
권리와 의무	-	-	-	-	1	1	-	-	2
자치의 이해와 실천	6	-	-	-	-	-	-	-	6
자기 이해 및 계발	25	1	-	-	-	-	-	4	30
놀이 교육 방법	-	2	5	3	-	-	-	-	10
소계	55	4	6	4	5	8	4	7	93
교양	13	-	1	-	2	1	-	-	17
총계	68	4	7	4	7	9	4	7	110

\* 지면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 영역명은 약어로 표기함.

[개선안] 교육 영역 × 자녀 발달단계별 교육(수)

교육 영역 \ 대상자	공통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계
			저	고				
의무교육	7	-	-	-	-	-	-	7
정책 이해	5	2	-	-	-	-	-	7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4	5	5	5	5	5	3	32
자녀 학업 지원	4	2	2	3	7	7	3	28
학부모의 학교 참여	4	1	2	2	2	2	-	13
학부모의 성장	5	-	-	-	-	-	-	5
소계	29	10	9	10	14	14	6	92

※ 주요 변화 1) 현행 7개 영역을 6개 영역으로 재구조화

2) ‘공통-교양’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달단계별 교육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구성

〈표 Ⅲ-15〉 ‘학부모 교육과정-교육 수 분배안’에 관한 자문 의견

교육 영역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응답 내용	빈도		
의무교육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0	0.71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7		
정책 이해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00	0.99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5		
	매우 적절함	4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42	0.84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7		
자녀 학업 지원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33	0.82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25	0.79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5		
	매우 적절함	5		
학부모의 성장	전혀 적절하지 않음	1	3.92	1.14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7		
	매우 적절함	3		

[주요 자문 의견]

- (종합) 기존의 교육 영역별 교육 수의 분포가 너무 편중되어 있어, 학부모 역량 강화에 대한 효과성이 의심됨. 이에 반해, 개선안에서는 대상별 교육 영역별 교육 수가 고루 배분되어 보임. 다만, 교육 영역에 따른 대상별 교육 다소 부족해 보이며, 대상별 교육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음.
- (수정) 의무교육과 정책 이해 영역의 교육 수는 적절하나, 학부모의 관심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줄이고, 학부모의 성장 시수를 높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수정) 정책 이해 교육은 공통교육으로서의 배정 시수를 줄이고 타 영역의 교육을 실시할 때 베이스로 제공되는 교육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할지 제안함. 타 영역과 관련된 교육 정책을 안내하면 그 연계성에 따라 정책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예)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 인천의 교육활동보호 정책 소개
- (의무교육, 정책 이해)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 선행학습금지 등 의무교육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정책 이해 배정 시수를 조정할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정책 이해)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나 교육 정책에 관한 관심도가 가장 높으므로, 해당 교육을 초등학교 발달단계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 (정책 이해) 정책 이해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인천광역시에 제한하기 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함께 안내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 (발달단계) 중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유아, 초등학교보다 교육 참여 및 동기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임. 이에 따라 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특색 교육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관련하여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으로 시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특별한 대상일 수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교육 시수의 추가적 분배가 필요함.

전문가들은 종합 의견을 통해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 수 분배안이 기존의 교육 운영보다 균형성이 높아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자녀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제시된 교육 수가 적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편, 수정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제안되었는데 한 가지는 학부모의 흥미 및 삶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성장’ 시수를 늘리는 방안이었으며, 다른 방안은 ‘정책 이해’ 교육을 타 교육 영역과 통합하여 기초 교육 내용으로서 안내하는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학부모의 성장’이 평생학습자이자 교육시민으로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시수 확대는 보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 이해’ 영역의 경우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인천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타 영역과 통합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4)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종합 의견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어 내실 있고 균형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음 <표 III-16>과 같은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16>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에 관한 종합 의견

- 학부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 이해 교육 영역이 마련되어 있음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짐.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됨.
- 교육과정 구성과 수가 적절하다고 여겨짐. 다만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학습에 대한 지원자인지 시민인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교육이 함께 구성된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과 함께 가는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됨.
- 교육활동의 보조 또는 지원 역할을 넘어 학부모도 성장하고, 학교 교육의 동반자이자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 의무교육과 정책 이해 영역은 학부모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중심의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자녀 학업 지원, 학부모의 성장 영역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나, 중복되는 교육이 많아 구체적인 교육 구상 시 차별화가 필요함.
- 학부모 의무교육과 정책 이해는 인천 학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중요함.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은 다른 교육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교육활동 내에서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므로 기본적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본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학부모 교육과정에 관한 종합 의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와 이를 통해 도모할 것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 교육이 학부모를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교육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되길 바란다는 공통된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부모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학부모 중심의 교육 내용 개발’을 반드시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종합 의견을 수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학부모의 요구를 기반으로 앎과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의 독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IV

##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1.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
2.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과  
활성화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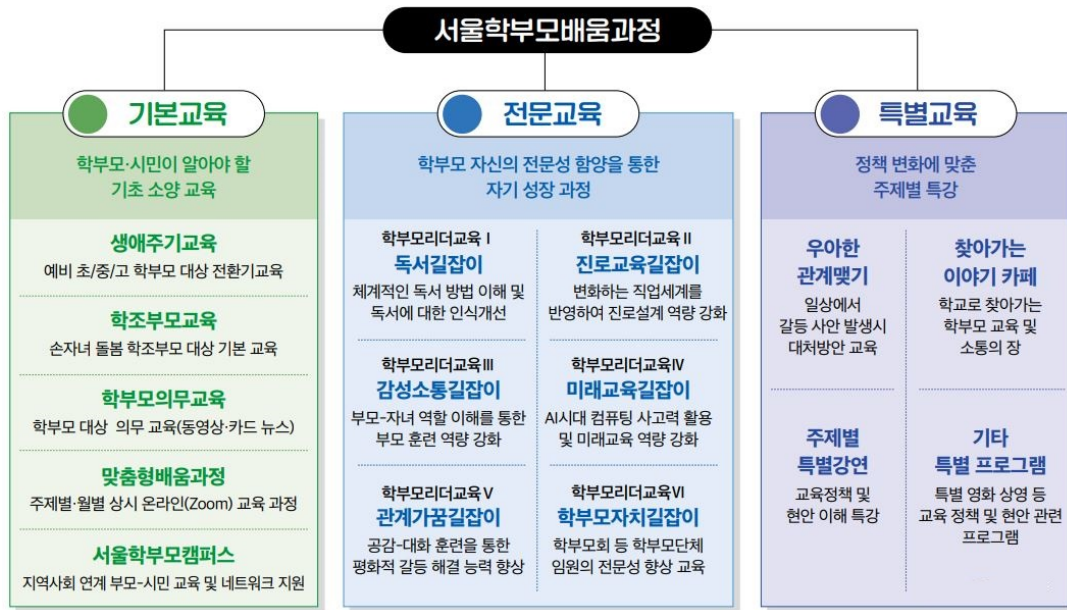
##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 1.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은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도성이 높은 정책 실현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시·도교육청 중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 주체별 역할을 명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있다.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나 특강의 방식을 채택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며, 주관 부서 또한 분산되어 있어 하나의 교육 체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개 교육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은 단일화된 학부모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칭은 ‘서울학부모배움과정’으로 2024년 4월부터 학부모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하위에 ‘기본교육(5분류), 전문교육(6분류), 특별교육(4분류)’의 구성을 가지는데, 3개 대영역-15개 분류를 통해 기초 소양과 자기 성장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학부모 배움과정의 구성 중점 중 하나는 기본교육을 통해 학(조)부모교육과 학부모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교육 참여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네트워크 형태의 서울학부모 캠퍼스를 지정·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학부모 배움과정은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서울학부모배움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본교육은 학(조)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권리와 의무, 자녀의 발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맞춤형배움과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전문교육은 ‘학부모리더교육’으로 명명된 일련의 교육이 제공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구성이 자녀의 발달에 관한 직접적인 교수보다 학부모 본인의 성장을 통해 자녀를 지원하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주도성이 돋보인다. 끝으로 특별교육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정책 이해를 돕고, 현안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도 시의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의 운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의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대면·비대면, e-learning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총 22개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학부모교육캠퍼스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접근성 제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은 크게 ‘든든학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든든학부모교육은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의 약어를 명칭으로 하여 교육 수요자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든든학부모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20명 이상이 모여 교육 장소를 선정하면, 신청을 통해 교육 강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든든학부모교육의 기본적 구성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울산광역시교육청 든든학부모교육

구분	교육 구성				
선택형	• 자녀발달단계별 교육과정(예비초/초저/초고/예비중/중/예비고/고/특수)				
	부모자녀	자녀학습	진로·진학	미래교육	공감교육
	자녀이해	교육과정	진로탐색	생태환경교육	자녀성교육
	부모역할	문해력/창의력	진로·진학·직업	디지털리터러시	인성교육
	자녀와 소통	자녀학습지원		미래사회	다문화이해
	관계증진	자기주도학습			시민교육
함께형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가 학교자치의 가치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체험교육				
소통형	• 교육공동체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대화법				

먼저 든든학부모교육의 선택형 교육은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관계 맺기, 학습, 진로·진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외에도 학부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교육과 공감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함께형과 소통형 교육은 교육 참여자 구성과 주제를 기준으로 명명된 것으로, 체험형 교육과 공감과 소통을 위한 대화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에 해당하며, 학부모가 가지는 다양한 교육적 위치(주양육자, 평생학습자 등)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든든학부모교육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학부모지원센터)과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2023년 기준)

운영주체	교육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부모지원센터)	든든 학부모교육	단위학교 학부모(회)	학부모(회)가 요구하는 자율주제 및 HAPPY 영역(체험, 성장, 발전, 공감, 확산)
	전문강사특강	울산 관내 학부모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명사 초청
	예비 학부모교육	초·중·고 예비 학부모	새내기 초·중·고 학부모를 위한 길라잡이
	온라인(위탁) 교육	울산 관내 학부모	온라인 교육 전문기관의 플랫폼 기반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주제 운영
강북교육지원청	특별과정	유·초·중학교 학부모	부모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
	심화과정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정 운영
	체험과정	자녀와 학부모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활동
	찾아가는 교육	유치원, 직장	유치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강남교육지원청	특별과정	유·초·중학교 학부모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자녀 교육정보제공
	아빠와 체험활동	자녀와 학부모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체험활동
	찾아가는 교육	유치원, 직장	유치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특징은 ‘교육정보 제공,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본청의 경우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든든학부모교육 외에도 특강, 예비 학부모 교육,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세부 내용 상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부모 간의 소통과 교육 접근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는지 잘 나타나는 한편, 교육 운영 주체별로 차별화를 시도한 지점이 명료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데, 이때 학부모지원센터를 대전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대전평생학습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직속 기관으로, 주요 사업으로 ‘대전늘푸른학교(학력 인정 과정 운영), 평생교육, 학부모 교육, 예술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의 경우 연간 290회 이상 교육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전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의 구성과 세부 정보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교육

교육명	내용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인성·예절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교육정책, 정보화지도	연간 70회
학부모 아카데미	자녀 발달단계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부모 역할	연간 10회
프리미엄 학부모특강쇼	미래사회 대비 창의·융합형 자녀 양육을 위한 코칭	연간 1회
학부모 체험강좌 만나·유 (만들고 나누고 치유하고)	요리, 원예, 공예, 숲체험 등 다양한 체험 강좌	연간 50회
달맞이 교실	진로교육, 학습지도, 디지털 중독 예방, 자녀소통,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녀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부부소통	연간 8회 (3~11월, 월 1회)
학부모 열린강좌	학습지도, 독서지도, 자녀소통, 초등생활, 중등생활, 고등생활	연간 48회 (상·하반기 2기, 기별 각 4~5회)
학부모 재능 역량강화 교육	하브루타 전문가 과정, 부모 강사를 위한 소통법, 학교 학부모 동아리 역량강화	연간 22회
학부모재능나눔단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 체험 및 학부모 놀이 연구모임	연간 82회 (학생 60회, 학부모 22회)
최고의 프렌디 교실	아버지·자녀 소통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체험 교육	연간 4회 (상·하반기 2기, 기별 2회)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이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은 9개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 교육의 목적에 따라 운영 방식과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가령,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달맞이 교실’은 직장인 학부모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 내용도 학부모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3~11월에 걸쳐 월 1회씩 8회가 운영되며, 야간에 비대면으로 운영됨에 따라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한편, 학부모 단일 대상으로 운영 빈도가 높은 교육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연간 70회)’과 ‘학부모 체험강좌 만나·나·유(연간 50회)’인데, 이러한 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도 역량과 학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치유를 돕는 내용을 고르게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교육이 연간 10회 이상 운영되어, 대전 관내의 학부모들은 관심사에 따라 학부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의 사례는 ‘평생학습관’이 학부모 교육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통상적으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소속의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의 사례는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학부모 교육의 주요 요소를 포괄하지만, 교육의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연 290회가 넘는 학부모 교육의 운영 성과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을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전평생학습관(대전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7명으로, 학부모지원과장과 팀장 외에 5명의 주무관이 교육을 분배하여 전담하고 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기관별로 1~4명을 주무자로 업무를 배정한 것과 대조적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 라.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 분석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 교육청의 운영 사례는 각각 교육과정의 설계, 제공하는 교육 내용, 운영 주체와 조직 구성 등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효율적인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 간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세 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운영은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부모지원센터를 본청의 참여협력담당관 내에 개설하고 22개의 직속 기관을 캠퍼스로 지정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더불어 2개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대전평생학습관을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행·재정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 290회 이상의 학부모 교육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부모 교육 운영에는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데, 기관 간의 역할을 명료하게 정립하는 것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의 역할(주양육자, 평생학습자, 교육시민)에 따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시·도교육청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이는 일부 학부모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주안점을 두는 교육 영역에는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 연계된다. 이에 따라 앞서 학부모 교육이 상정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다층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 지도를 위한 교육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 고르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학습자’라는 인식이 약한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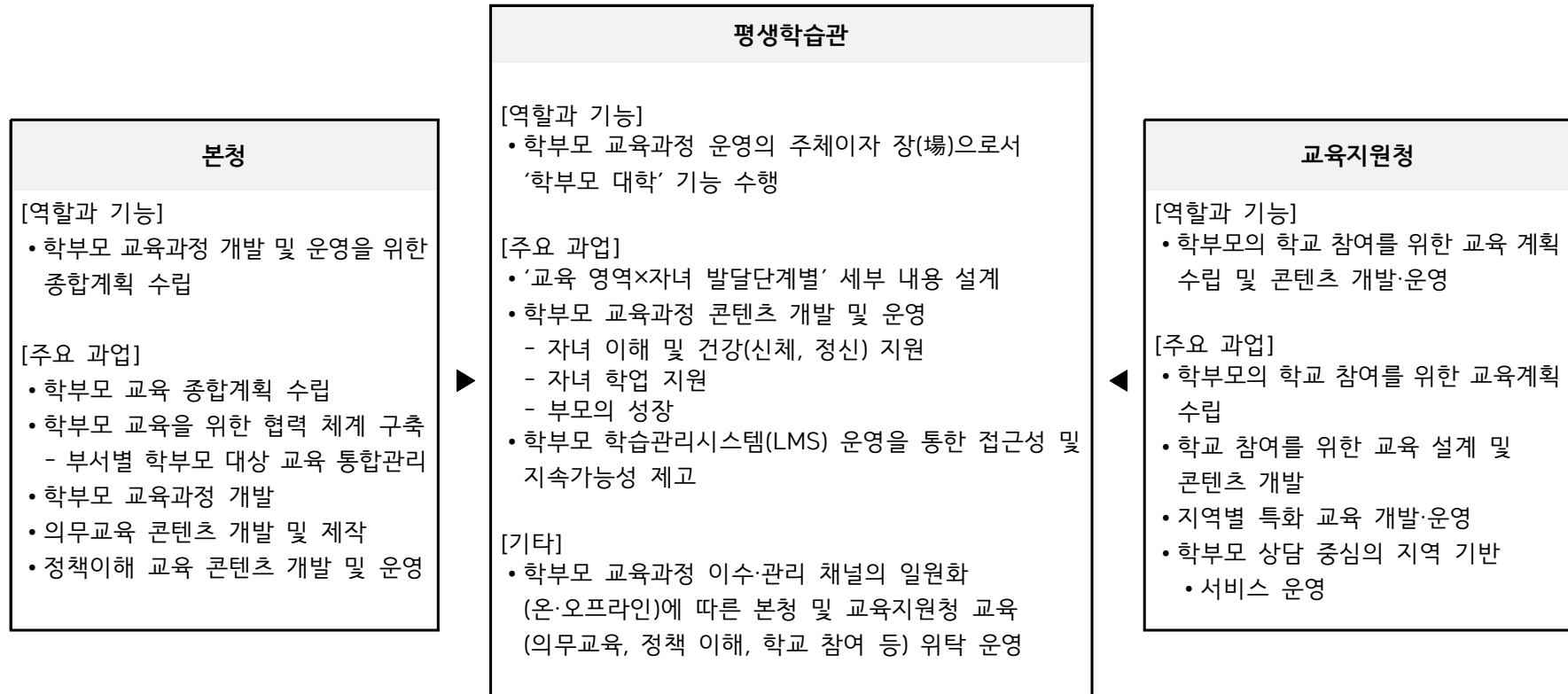
## 2. 학부모 교육 추진 개편과 활성화

### 1)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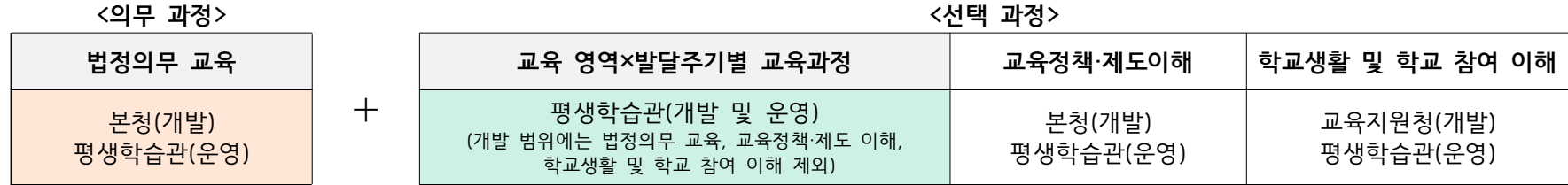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본청의 각 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이 모두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에 ‘꿈디 학부모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외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앞선 장에서 분석한 2025년에 예정된 학부모 교육 운영 현황에서는 운영 주체별 교육 수가 ‘본청 23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 기관 63개(평생학습관 61개, 유아교육진흥원 1개, 동아시아국제교육원 1개)’로 쏠림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청에서 운영 예정인 23개의 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10개의 과가 개별 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 교육 주무 부서’에 의한 교육 운영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앞선 논의를 통해 제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안)’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때 세 교육 운영 주체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히 교육과정 내의 교육을 나누는 형태로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 수립-교육 영역별 프로그램 설계·운영-특별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운영-학습 이력 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지점에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에 근거한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에서 제시하는 주요 과업은 1) 학부모 교육 종합계획 수립, 2) ‘교육 영역×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개발·운영, 3)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주제로 한 교육 개발·운영, 4) 지역별 특화 교육 개발·운영, 5) 학부모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러한 주요 과업은 현재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주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그림 IV-2], [그림 IV-3]과 같이 분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 의견은 자문을 통해 수립하기로 하였다.



[그림 IV-2]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_초안



교육 영역 \ 교육 주체	평생학습관	본청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	7	-
정책 이해	-	7	-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19 (32) <sup>6)</sup>	-	-
자녀 학업 지원	22 (28)	-	-
학교 참여	-	-	6 (13)
부모의 성장	5	-	-
총계	46	14	6

[그림 IV-3] 운영 주체에 따른 학부모 교육 분포(안)

6) 괄호 안의 수는 동일한 교육을 학교급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산정된 교육 수이며, 괄호 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의 총계는 92개임.

연구진은 ‘학부모 교육 체제 개편(안)’을 통해 각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각 기관의 기능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되 지역별 특화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으로 교육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학’이나 ‘학습통합관리시스템(LMS)’과 같이 종합적 교육의 제공과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방안도 신설하여 포함하였다.

‘학부모 교육 체제 개편(안)’ 중 각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평정 결과와 추가 의견은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주체별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자문 의견

주체별 역할과 기능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본청	학부모 교육 종합계획 수립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67	0.48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8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75	0.42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9		
	의무교육 설계 및 콘텐츠 개발·제작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8	0.70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8		
	정책 이해 교육 설계 및 운영 관리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8	0.70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1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8		



주체별 역할과 기능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평생 학습관	학부모 교육의 운영 주체로서 '학부모 대학' 기능 수행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3.92	1.37
		적절하지 않은 편임	3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5		
	3개 교육 영역에 대한 콘텐츠 개발·운영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자녀 학업 지원, 부모의 성장)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42	0.97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4		
	학부모 학습통합관리시스템(LMS) 운영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17	1.10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6			
교육 지원청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 설계 및 콘텐츠 개발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42	0.97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7		
	지역별 특화 교육 개발·운영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8	0.52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5		
		매우 적절함	7		
	학부모 상담 중심의 지역 기반 서비스 운영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50	0.5
		적절하지 않은 편임	0		
		보통임	0		
		적절한 편임	6		
		매우 적절함	6		

[주요 자문 의견]

- (종합) '본청', '평생학습관', '지원청'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문화한다는 것이 매우 좋은 방향임. 업무 분담과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새롭게 신설되는 다양한 업무와 활동이 기대됨.
- (종합) 추진체계의 개편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함. 현재 학부모 교육이 분산되어 운영되는 느낌도 들어서 3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LMS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부모 안내 및 홍보 채널도 일원화한다면 학교의 업무 감소 및 학부모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체별 역할과 기능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주체별 역할에 따른 정립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음. 본청의 학부모 교육과정, 평생학습관의 학부모 교육과 학습,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학교 참여와 관련해 그 역할과 기능 주요 과업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다만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상담 중심의 지역 기반 서비스 운영' 부분에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li> <li>• (제안) 본청은 학부모 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설계와 추진을, 직속 기관은 학부모 성장과 자녀 이해 및 학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li> <li>• (제안) '학부모 대학'이라는 용어 사용이 매우 긍정적임. '아카데미'라는 말로 축소하지 말고 '학부모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li> <li>• (제안) 평생학습관의 지리적 위치상 남동구, 연수구 인근 거주자가 교육에 주로 참여함, 전지역 학부모를 위한 (가칭)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별 교육센터(학교, 교육지원청)를 지정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지역별 교육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면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li> <li>• (수정) 본청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이해 교육 설계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학부모 대학은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생학습관은 지금까지의 운영해왔던 경험을 통해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운영에 초점을 맞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li> <li>• (본청) 본청의 종합계획 수립은 교육지원청과 평생학습관에 기본틀을 제공함에 기본 철학을 확고히 하여야 함.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운영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함.</li> <li>• (본청)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의 학습 과정 일원화와 유인가 제공을 위해서 LMS 구축을 선행해야 함. - 예) 대구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li> <li>•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교육 주체인 학부모들의 접근성 및 주요 영역의 교육 개발과 그에 따른 홍보를 통해 많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본청에서 내려준 교육안을 기본으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로 교육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학습자인 학부모가 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평생학습관) 현재 평생학습관은 일반시민, 학생, 교직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주도적인 학부모 교육의 위탁 운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li> <li>•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에 맞는 특화 교육을 개발, 운영함에 있어 타지역에도 확장될 수 있는 성장 교육을 개발·운영 할 수 있어야 함. 특히 해당 교육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li>• (교육지원청)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소규모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또한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하는 것을 제안함.</li> </ul>			

자문 결과 교육 주체별로 제안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평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4개 문항 모두 평균 4.5를 상회하여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개방형 문항을 통해서도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문화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본청은 앞으로 학부모 교육에 관한 확고한 교육 철학을 통해 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평균 4.0에 수렴하여 비교적 적절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다른 주체에 관한 문항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과 ‘적절하지 않다’는 평정 결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적절하지 않다’고 평정한 전문가는 현재 평생학습관이 일반시민, 학생, 교육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지리적 위치상 인천 관내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모두 높일 수 없으므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를 교육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캠퍼스 지정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이 재구성된 것을 반영하여 운영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점진적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어지는 정책 제언에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교육지원청의 경우 3개로 제안한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평균 4.5에 수렴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비교적 적절하다고 인식되었다. 다만,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 설계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평정한 전문가의 경우 구체적인 평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가 다수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자문 결과는 연구진이 목적인 체계성과 일원화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에 반영한 결과를 결론 절에 제시하였다.

## 2)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의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부서 협의에서도 계속 제기된 문제의식은 ‘어떻게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부모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의 학부모 교육 주무 부서의 제안을 토대로 다음 <표 IV-5>와 같은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IV-5>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

방안	내용
학부모 교육 운영 우수학교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li> <li>• 대상 :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li> <li>• 운영 : 단위 학교별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받아 상위 50개교에 대한 기관장 표창 및 학부모용 도서 구매 비용 지원</li> <li>• 효과 : 학교 구성원의 관심도 제고 및 홍보 동기 부여</li> </ul>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지표 내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민주적 학교 운영 원리에 기반한 학부모의 교육 역량 함양</li> <li>• 대상 : 결대로자람학교 운영교</li> <li>• 운영 :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시 ‘교육구성원 역량 증진’ 영역을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이수를 노력 등을 평가</li> <li>• 효과 :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조하는 결대로자람학교 정책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 역량’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 교육 안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li> <li>• 대상 : 단위학교 학부모</li> <li>• 운영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 의무교육 운영</li> <li>• 효과 : 학교 참여가 활발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의무교육 이수 문화 확산</li> </ul>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학부모 의무교육 안내 및 접근성 향상</li> <li>• 구성 1) 학부모 의무교육 안내 2) 의무교육별 학습 자료 3) 온라인 강의 QR 4) 사안별 신고/상담 정보</li> <li>• 배포 방식 : 단위학교 공문 시스템 및 e알리미 등을 활용한 배부 - 학생살핌주간 등에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li> </ul>
교육과정 기반의 ‘이수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학부모 교육과정 중 의무교육을 포함한 6개 영역에서 일정 강의(시수)를 이수한 경우 별도의 디플로마(diploma) 수여</li> <li>• 활용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등록하여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2)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교육 이수 증서 발급 3) 교육청 및 직속 기관 사업(특강 등) 참여 시 우선순위 부여</li> </ul>

위와 같이 구성한 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냉철하게 적절성을 평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 운영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안에 관한 전문가의 평정 결과 및 의견은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 의견

주체별 역할과 기능	응답 값		평균	표준 편차
	응답	값		
학부모 교육 운영 우수학교 인증제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3.25	0.94
	적절하지 않은 편임	4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5		
	매우 적절함	1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내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 반영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3.58	1.18
	적절하지 않은 편임	2		
	보통임	4		
	적절한 편임	3		
	매우 적절함	3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 교육 안내·운영 의무화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08	1.33
	적절하지 않은 편임	2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1		
	매우 적절함	7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4.25	1.14
	적절하지 않은 편임	1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2		
	매우 적절함	7		
교육과정 기반의 ‘이수인증제’	전혀 적절하지 않음	0	3.58	1.17
	적절하지 않은 편임	3		
	보통임	2		
	적절한 편임	4		
	매우 적절함	3		

## [주요 자문 의견]

- (인센티브) 학부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들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기를 부탁드립니다만 실제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편임.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학교에 대한 시상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보다는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을 이수했을 때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및 상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임.
- (교육콘텐츠) 학부모 총회 때마다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매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할 내용이 많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의무교육보다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더 많아 오히려 효과가 떨어짐. 학부모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자료가 공문으로 오지만 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홍보 영상 또는 웹툰 형식의 안내문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일괄 탑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 (인증제) 학부모 교육 운영 우수학교 인증제와 관련한 기관장 표창과 도서 구매 비용지원이라는 부분은 학교별 이수 독려로 민원의 소지 및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음.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가진 방안이 요구됨.
- (자료집/학부모 총회)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단위학교에서 공문으로 홍보하는 방식은 이중으로 업무가 진행되거나 단위 학교의 필요성 또는 중요도의 인식 차이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가급적 e-알리미 등을 통해 모든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자료집/학부모 총회) 학부모 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접근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의무교육 사례집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입학식 때 보급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홍보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결대로자람학교)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내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 반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결대로자람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이 자발적 선택으로 학생이 되거나 학부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수인증제) 교육과정 기반의 ‘이수인증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교육 이수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교육과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부모들의 성취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참여 독려) 맞벌이 학부모의 참석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됨.
- (참여 독려)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교육이수를 강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 교육을 위한 인프라(특히 공간) 확보가 필수적임.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 교육 안내·운영 의무화’와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는 비교적 적절하지만,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성과 부수적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관통하는 전제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학교 및 교사에게 부담이나 민원을 발생시킬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육 운영 우수학교 인증제’나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내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 반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확인되었다.

한편, 학부모 의무교육 운영을 위한 안내 자료와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안내할 경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전문가는 학부모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 자료를 영상 또는 웹툰 형식으로 구성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탑재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자문 결과는 기본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Top-down’ 방식의 정책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본 연구를 통한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 논의는 한계를 가지므로, 정책 제언을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홍보와 함께 학부모 교육 이수 활성화 아이디어에 관한 공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에 관한 종합 의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은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본청, 평생학습관, 교육지원청)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음 <표 IV-7>과 같은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V-7>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안)’에 관한 종합 의견

- 학교 업무 담당자 또는 학교 학부모회 연수 운영 시 연간 ‘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학부모 연수 종합계획을 안내하면 학교와 학부모회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임.
-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걸림돌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학교와 많이 소통하고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만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공통 사항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안내 및 홍보되어 좋은 정보들이 학부모들에게 누락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에 제시한 ‘학점 인정’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됨. 특히 인천시민대학과 연계하여 교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이 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등으로 교육 운영 업무가 구분된 것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유기적으로 교육과정-학습-학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따라야 함.
- 학부모 교육 운영에서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내는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 사회가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학부모이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안함.
- 학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학부모’라는 단어가 가지는 틀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호자라는 대체어가 있으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학부모 교육, 학부모총회, 학부모참여 등을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음.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인천 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명칭이 있었으면 함.
- 직장인 학부모 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만의 6개 교육과정에 대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가칭)인천학부모 교육 포털사이트(LMS구축)에 탑재하여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본청-평생학습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가 정말 원하는 교육과정(수요조사)을 기반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를 위하여 학부모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교육센터(학교, 교육지원청)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평생학습관의 적극적인 교육 운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체험과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학부모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과 그외 관련 전문가들을 함께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에 관한 종합 의견은 크게 7가지의 제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 교육과정 및 연간 교육 운영계획 안내
- 2) 학부모들에게 직접적 안내 및 홍보
- 3) 인천시민대학과 연계한 학점 인정
- 4)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한 교육 운영
- 5) 좋은 질과 접근성을 확보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6) 지역별 교육센터 지정을 통한 교육 활성화
- 7)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인천 학부모 교육의 브랜드화

위와 같은 제언은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는 체제 변화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주체가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의의가 있다. 특히 제안된 아이디어 중 ‘인천만의 특화된 학부모 교육 브랜드’나 ‘지역별



교육센터 지정'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부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좁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학습자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고려할 때 '건강한 양육자이자 실천하고 연대하는 교육시민, 스스로 성장하는 평생학습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다중적이고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학부모 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배움과 삶을 연계하는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교육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참여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체계성과 유의미성을 갖춘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체제 개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과정인 ‘꿈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지원청과 평생학습관이 자체적인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재한 방식의 교육 운영은 행·재정적 자원을 중복된 교육에 투입하고, 나아가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통합된 ‘학부모 교육과정’과 ‘추진 체제 개편(안)’을 구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과정 재구성’이며,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꿈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025년에 운영이 예정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하는 연구 과정을 수행하였다.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부서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2025년 학부모 교육 운영(예정) 현황 자료(이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서 계획 중인 학부모 교육은 총 106개로 기관별 교육 운영(예정) 수는 평생학습관이 61개로 가장 많았다(본청 23개, 교육지원청 20개, 기타 직속 기관 2개).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내용 체계를 연구한 강혜영 외(2022)가 제시한 교육 요인을 교육 영역으로 전환하고, ‘교육 영역×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 영역 중 ‘자기 이해 및 계발, 일반 교양 및 취미’에 다수의 교육이 쏠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황 자료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구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발달단계 기준을 ‘유, 초저/고, 초(공통), 중, 고, 특수, 공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 교육(106개 중 68개 교육)으로의 쏠림현상도 확인되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통합된 학부모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학부모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행한 학부모 교육 요구조사의 응답 자료를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2개의 조사 자료(대상 구분에 따른 5개 자료) 분석 결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관심 교육 영역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교급이 가장 낮은 초등학생 학부모는 ‘인성·생활 지도,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진로·진학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교사들은 재직 중인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도(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인성·생활 지도, 진로·진학 지원’이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영역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현황 및 요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체계성, 계열성, 유의미성, 효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은 아래 <표 V-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 의무교육, 교육제도와 정책 이해,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자녀 학업 및 진로·진학 지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의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교육 영역을 구분하며, 총 92개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학부모 교육과정의 주요 축을 이루는 자녀의 발달단계는 ‘공통, 유아, 초등학생 저/고/공통, 중학생, 고등학생, 느린 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다문화가정 학부모’로 구분하였으며, 공통 교육을 제외하고 각 발달단계에 9~14개의 교육을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또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는 별도의 발달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통 교육 및 발달단계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학부모 교육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부모 교육의 기반으로, 현장 접근성과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표 V-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_최종안

영역	대상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학부모 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sup>7)</sup>							7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도박예방교육							
교육제도와 정책 이해		교육정책·제도 이해	유보통합 이해						7
		인천교육 트렌드	유초연계 이음교육 이해						
		읽건쓰 역량 강화							
		결대로자람학교 이해							
		느린 학습자 이해 (난독증, 경계선지능 등)							

7)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임.

영역	대상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자녀이해 및 건강 지원	사회·정서학습 이해	부모와 함께 정립하는 올바른 성관념(성교육)						느린 학습자 정서 지원	33 (중복 포함)
	심리·정서 안정 이해	부모와 관계 맺기 - 가정의 문화 형성과 역할 수행(안정 애착과 결핍)						장애 이해와 발달	
	학습 장애 이해 (ADHD 등)	자녀의 사회생활 - 또래 및 대인 관계 정립(갈등과 해소)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과 소속감	
	안전 교육 지도법 (일상, 온라인 등)	유아 발달 특성	초등학생 발달 특성(저)	초등학생 발달 특성(고)	중학생 발달 특성	고등학생 발달 특성	-		
	올바른 인성 지도법	발달 지연 이해 (언어, 신체 등)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문제행동과 가정지도		중학생 문제행동과 가정지도	고등학생 문제행동과 가정지도	-		
자녀 학업 및 진로·진학 지원	신입생 학부모 교육 (예비 초·중·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학교급별 중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안내	28 (중복 포함)
	개별화 교육의 이해 (영재/특수 교육 등)	-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중단예방			느린 학습자 학업 지원		
	발달단계별 학습법 이해 (유·초 놀이교육 포함)	초등학교 진학 준비	초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중학교 진학 준비	중학교 생활 적응 안내	고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다문화가정의 학업 지원		
	학습 습관 형성	-	-	-	자유학기제와 학업 관리	고교학점제 안내	-		
	-	-	-	-	고등학교 진학 준비(일반)	대학입학전형 안내	-		

영역 \ 대상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자녀 학업 및 진로·진학 지원	-	-	-	-	고등학교 유형 이해와 진학	대학입학 준비 전략	-	-
	-	-	-	-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	직업 이해와 진로 선택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교참여지원사업 안내	-	자녀 양육을 위한 학교와 협력적 관계 맺기 (학교 운영 참여, 교사와 협력적 관계 정립 등)			-	-	13 (중복 포함)
	학부모 단체 이해와 참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부모 역할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이해와 참여					
	학부모 청렴 교육							
학부모의 자기 이해와 성장	미래사회와 시민성	-	-	-	-	-	4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자신의 건강(신체, 정신) 관리							
	관계 맺기와 소통 전략							
교육 수	29	10	9	10	14	14	6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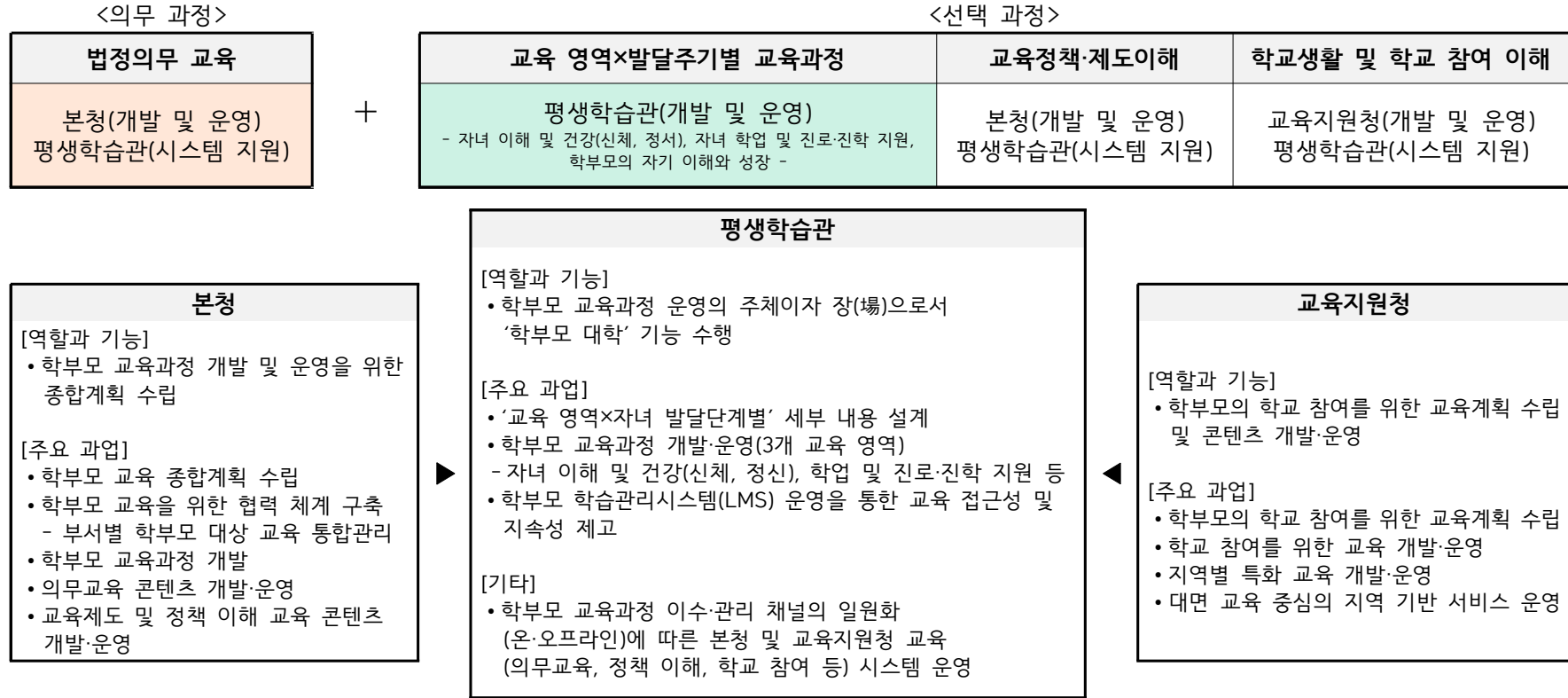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도출이며, 이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예정된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는 평생학습관이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운영 사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례와 유사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에 구성된 학부모 교육 전담 조직을 통해 연 290회에 달하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부모 교육 운영 체제는 연구진이 의도한 ‘통합 및 일원화된 교육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적절한 인원 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기반 캠퍼스 운영(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 운영(울산광역시교육청) 사례를 함께 검토 하였으며 각 운영 사례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의 체제 변환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의 내용에 따라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 V-2>, [그림 V-1]과 같다.

<표 V-2>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

주체	역할과 기능
본청	학부모 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교육제도 및 정책 이해 교육 개발·운영
평생학습관	학부모 교육의 운영 주체로서 ‘학부모 대학’ 기능 수행
	3개 교육 영역에 대한 콘텐츠 개발·운영(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자녀 학업 및 진로·진학 지원, 학부모의 자기 이해와 성장)
	학부모 학습통합관리시스템(LMS) 운영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 영역별 온라인 교육 탑재 및 이수 관리)
교육지원청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 개발·운영
	지역별 특화 교육 개발·운영
	대면 교육 중심의 지역 기반 서비스 운영



[그림 V-1]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안

연구진이 제안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의 전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구축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성립된 이후에 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하나의 조감도 안에서 유기성을 가질 수 있다. 해당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본청)은 학부모 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시의성 있고 유의미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제도와 정책이 본청을 통해 수립·전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교육’과 ‘교육제도 및 정책 이해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한다.

한편, 평생학습관의 경우 학부모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이자 장(場)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은 ‘학부모 대학’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학부모들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학습관의 주요 과업은 ‘교육 영역×자녀의 발달단계별’ 세부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 채널의 일원화’라는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구축 목적은 현재까지 산발적이고 단기간 운영되었던 학부모 교육을 혁신하고, 체계적인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습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체별 역할과 기능 수행 중 평생학습관의 개편에 주목하였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체제가 실현되는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접근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끝으로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운영’의 주체로 역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들은 학부모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 정책 사업 추진 기반 조성’, ‘시·도 및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야 하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와 기능이 ‘교육 제공’보다는 ‘교육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체별 과업의 재조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의 개편’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말미에서 제시한 ‘학부모 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재탐색이 필요한데, 연구진이 제시한 5가지의 방안 중에서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와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 교육 안내·운영'만이 모든 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요구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모 의무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친절한 형태로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교육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향후 학부모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 전문가의 의견처럼 '매력적인 교육'을 구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교육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도 변화하는 교육제도나 패러다임에 따라 교육 내용을 탐색하고, 교육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3가지 정책과 추진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가.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재지정 및 기능 강화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의 주도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러한 교육 운영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거나, 유기성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해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학부모 지원센터'가 본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운영 성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또한 학부모 교육 일원화를 촉구하는 근거가 된다.

위와 같은 현황은 비단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이 내실화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행·재정적 자원 및 인력 배치의 문제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기관별로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연간 교육 수가 92개, 세부 프로그램 개발 시 100여 개 이상의 학부모 교육이 운영될 것을 고려한다면 학부모 지원센터의 재지정과 추가 인력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추진 전략〉

- 학부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부모 교육 전담 기관 재지정
  - 학부모 지원센터 모형 ‘E’, 직속 기관 지정
-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 교육 일원화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
  - 주체별(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역할 및 기능 수행을 통한 협력 체제 구축
- 전담 조직의 인력 추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 전담 조직의 인력은 교육 및 현장 전문성과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 직원 및 평생교육사, 주무관 등을 고르게 배치

#### 나. ‘학부모 대학’ 중심의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에서 수렴한 학부모 교육에 관한 요구 중 하나는 평생학습자이자 교육시민으로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제공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만의 학부모 교육 브랜드를 구상하고, 조손가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구성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부모 대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2개의 직속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부모 교육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학부모 교육 홈페이지 운영·꿈디아카데미 운영·단위학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 등을 학부모 교육과정의 세부 운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의 채널을 ‘학부모 대학’으로 일원화하고,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 캠퍼스(도서관, 단위학교 등)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추진 전략〉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브랜드화
  -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고려한 학부모 교육 브랜드 개발
- ‘학부모 대학’으로의 개편과 캠퍼스 확대
  - 학부모의 평생학습자 및 교육시민으로서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학부모 대학\*’ 운영 \*학부모 교육 브랜드 결정 시 재명명
  - 학부모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캠퍼스(도서관, 단위학교 등) 지정
-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의 질 제고
  - ‘인천시민대학’ 등과 연계한 특별강좌 구성 및 학점 부여

#### 다. 학부모 교육 포털 개설·운영

학부모 교육에 대한 안내와 이수 관리 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포털이나 학습관리 시스템(LMS) 구축은 필수적이다. 다만,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좁은 의미에서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통합 지원 기능을 포함한 ‘포털’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교육 홈페이지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개괄적 안내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의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학습자의 수강 신청 및 이수 결과, 직접 학습과 평가 등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학부모 대학’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 교육 포털을 구축하는 경우 직접적인 교육 제공과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학생 수가 약 35만 명에 이르고, 이들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추진 전략〉**

-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한 ‘학부모 교육 포털’ 구축
  - 학부모 정책 안내, 교육 운영, 학습 이력 관리 기능 포함
- 학부모 교육 데이터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학부모 교육 요구에 대한 주기적 조사 데이터 축적
  - 학부모 교육 데이터(요구, 이수 등)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 개발 체계화

이상의 정책 제언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개혁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혁신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학부모 교육이 확산하도록 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영, 이지연, 백승국, 허윤영(202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의 내용 체계 및 실행 방안. 인천교육-2022-021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교육. 파주 : 교문사.
-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브로슈어.
- 서정화, 강인수, 김숙이, 조호제, 신선희, 한정혜, 서성훈(2019). 학부모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서교연 2019-3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서현석(2014). 한국 학부모 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4(8), 363-380.
- 소미영, 김봉제, 정효미 (2019). 학부모 교육주체화를 위한 연수 개선 방안. 현안 2019-17. 경기도교육연구원.
- 신선희, 강인수, 조호제, 한정혜(2020).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정책과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연구. 학부모연구, 7(2), 1-29.
- 오재길, 임선일, 진숙경, 이병근, 이은경, 조경민 (2016). 학부모 교육주체화 방안 연구. 기본 2016-05.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강이, 그레이스 정, 이현아, 최인숙(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영임, 기유석, 우성화, 이가영, 정은희, 구미령, 김수미(2015).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연수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15교육생정연구과제보고서.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인천광역시교육청(2024). 2024 인천교육계획.
- 홍후조, 백혜조, 민부자, 변자정, 조호제, 하화주, 장소영, 이해정(2013).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31(21), 171-198.



## 홈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학부모지원센터

<https://www.dllc.or.kr/parent/index.do>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학부모지원센터

<https://use.go.kr/hakbumo/index.do>

인천학부모꿈디교육

<https://www.ice.go.kr/parentedu/cm/cntnts/cntntsView.do?mi=10142&cntntsId=388>

## 부록\_전문가 자문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자문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의 자문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문은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학부모 교육과정'과 '주체별 역할 수행'에 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학부모 교육과정과 주체별 역할의 근거는 선행연구 분석과 학부모 요구 조사 결과, 유관부서 협의회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필요한 내용의 경우 조사지 본문에 세부 정보를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이 향후 학부모 교육의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임을 염두에 두어 주시고, 자문 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23일(수)**까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고견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임태원 드림

**자문위원 정보**

성함	소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다음은 현행 학부모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학부모 교육과정(안)’입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자문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대상 교육영역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2)							7
	교육활동참여권위대행교육							
	선행학습 유발 근절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도박예방교육							
정책 이해	교육정책·제도 이해	유보통합 이해						7
	인천교육 트렌드	유초연계교육이해						
	읽길쓰기 역량 강화							
	결과로자람학교 이해 느린 학습자 이해 (느린학습 경계선기능 등)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사회·정서학습 이해	부모와 함께 정립하는 올바른 성관념(성교육)					느린 학습자 정서 지원	32 (중복 포함)
	심리·정서 안정 이해	부모와 관계 맺기 - 가정의 문화 형성과 역할 수행(안정 애착과 결핍)					장애 이해와 발달	
	학습 장애 이해 (ADHD 등)	자녀의 사회생활 - 또래 및 대인 관계 정립(갈등과 해소)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과 소속감	
	안전 교육 지도법 (일상, 온라인 등)	유아 발달 특성	초등학생 발달 특성(저)	초등학생 발달 특성(고)	중학생 발달 특성	고등학생 발달 특성	-	
	-	발달 지연 이해 (언어, 신체 등)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문제 행동과 가정 지도	중학생 문제행동과 가정 지도	고등학생 문제행동과 가정지도		-	

1) 주황색으로 음영처리된 교육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임.  
2)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활동참여권위대행교육, 선행학습 유발 근절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임.

- 2 -

대상 교육영역	공통	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느린 학습자·특수교육대상자·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수
			저	고				
자녀 학업 지원	신입생학부모교육 (예비 초·중·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학교급별 중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안내	28 (중복 포함)
	영재교육의 이해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준비예방				느린 학습자 학업 지원	
	학습법 이해 (자기주도, 메타인지)	초등학교 진학 준비	초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중학교 진학 준비	중학교 생활 적응 안내	고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다문화가정의 학업 지원	
	학습 습관 형성				자유학기제와 학업 관리	고교학점제 안내		
	-				고등학교 진학 준비(일반)	대학입학전형 안내		
학부모 학교 참여	학교참여지원사업 안내	자녀 양육을 위한 학교와 협력적 관계 맺기 (학교 운영 참여, 교사와 관계 맺기 등)						13 (중복 포함)
	학부모 단체 이해와 참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부모 역할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이해와 참여					
학부모의 성장	학부모 정령 교육							5
	미래교육 이해 (디지털교육, 생태환경교육 등)							
	민주시민 역량 강화							
	성인지감수성							
교육 수	29	10	9	10	14	14	6	92

- 3 -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과정 및 추진 체제의 정립을 목적으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교육과정의 교육 영역’** 를 검토하여 적절성을 평정하여 주시고, 세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절성 평정은 해당란에 v자로 체크

번호	교육 영역 (중 6개 영역)	매우 적절함	적절함	보통임	적절 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1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익히는 '법정의무교육'					
2	인천교육 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참여를 위한 '인천교육 정책 이해'					
3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 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이해 및 건강(신체, 정서) 지원'					
4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학업 지원'					
5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건전한 관계 맺기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6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학부모의 성장'					

**[참고 자료]**

• **현행 ‘인천 학부모 꿈다 교육과정’ 의 비전과 목표**

- 1) 비전: 학부모가 인천의 미래교육, 인천교육의 꿈을 함께 디자인하다
- 2) 추구하는 학부모상(교육 목표)
  -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
  - 자녀가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돌보고 지적·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양육자
  - 인천교육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연대하는 교육시민
- 3) 교육과정의 구성
  - 기본과정: 안전안심 교육지원, 시민성 함양, 인천교육 정책의 이해, 학부모 참여 이해
  - 심화과정: 부모·자녀 관계역량 강화, 부모역량 강화, 진로진학 지원, 학습 지원,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 인성·생활지도

• **개선 근거**

- 1) 추구하는 학부모상과 연계한 하위 교육 영역의 재구조화
- 2) 학부모가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강조의 필요성
- 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업’ 과 ‘건강(정서, 신체)’ 중심의 교육 내용 개편 필요성
- 4) ‘부모역량 강화’,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 ‘학습 지원’ 등 모호하거나 층위가 맞지 않는 교육의 재구조화 필요성

**[자문 의견]**

2. 연구진이 제시한 ‘**학부모 교육과정(안)**’ 구성의 **주안점**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평정하여 주시고, 세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절성 평정은 해당란에 v자로 체크

번호	구성 주안점	매우 적절함	적절함	보통임	적절 하지 않음	매우 적절하지 않음
1	자녀의 발달단계를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구성함.					
2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특별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성함.					
3	‘정책 이해’ 영역에서 주요 정책 브랜드와 현안을 주제로 공통 교육을 구성함.					
4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영역에서 발달단계의 특성 이해와 신체,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함.					
5	‘자녀의 학업 지원’에서 발달단계별로 ‘진학 준비-학교 적응-진로 선택’을 기본 구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함.					
6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서 협력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여 ‘교사-학부모 관계 맺기’를 주요 내용으로 추가 구성함.					
7	‘학부모의 성장’은 미래교육, 민주시민역량, 양육 코칭 등 교양 성격의 교육 내용을 구성함.					
[자문 의견]						

3. 다음은 **현행 학부모 교육의 교육영역별 프로그램 분포**와 연구진이 제시하는 **개선안의 프로그램 분포**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영역별 프로그램(수) 배정**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평정하여 주시고, 세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절성 평정은 해당란에 v자로 체크

[현행]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영역별 프로그램 분포(수)									
교육영역 \ 대상자	공동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계
			저	고	공동				
의무교육	-	-	-	-	1	1	-	-	2
정책 이해	4	-	-	-	-	-	-	-	4
놀이	-	2	5	3	-	-	-	-	10
자녀 건강 <sup>3)</sup>	9	-	1	1	1	1	-	1	14
자녀 학업	11	1	-	-	3	6	4	2	27
학교 참여 <sup>4)</sup>	6	-	-	-	-	-	-	-	6
개인 성장 <sup>5)</sup>	25	1	-	-	-	-	-	4	30
<b>소계</b>	<b>55</b>	<b>4</b>	<b>6</b>	<b>4</b>	<b>5</b>	<b>8</b>	<b>4</b>	<b>7</b>	<b>93</b>
교양	13	-	1	-	2	1	-	-	17
<b>총계</b>	<b>68</b>	<b>4</b>	<b>7</b>	<b>4</b>	<b>7</b>	<b>9</b>	<b>4</b>	<b>7</b>	<b>110<sup>6)</sup></b>

[개선안]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영역별 프로그램 분포(수)									
교육영역 \ 대상자	공동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계	
			저	고					
의무교육	7	-	-	-	-	-	-	-	7
정책 이해	5	2	-	-	-	-	-	-	7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4	5	5	5	5	5	3	3	32
자녀 학업 지원	4	2	2	3	7	7	3	3	28
학부모의 학교 참여	4	1	2	2	2	2	-	-	13
학부모의 성장	5	-	-	-	-	-	-	-	5
<b>소계</b>	<b>29</b>	<b>10</b>	<b>9</b>	<b>10</b>	<b>14</b>	<b>14</b>	<b>6</b>	<b>6</b>	<b>92</b>

※ 주요 변화 1) 현행 7개 영역을 6개 영역으로 재구조화  
 2) '공동-교양'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달단계별 교육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구성

3) 자녀의 건강은 '신체 및 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포괄함.  
 4) 학교 참여는 교육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5) 개인의 성장은 '가정 관리, 디지털시민성, 개인 역량(글쓰기) 등'을 위한 교육을 포괄함.  
 6) 4개 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중복 계산함(10개 교육+4개 교육=110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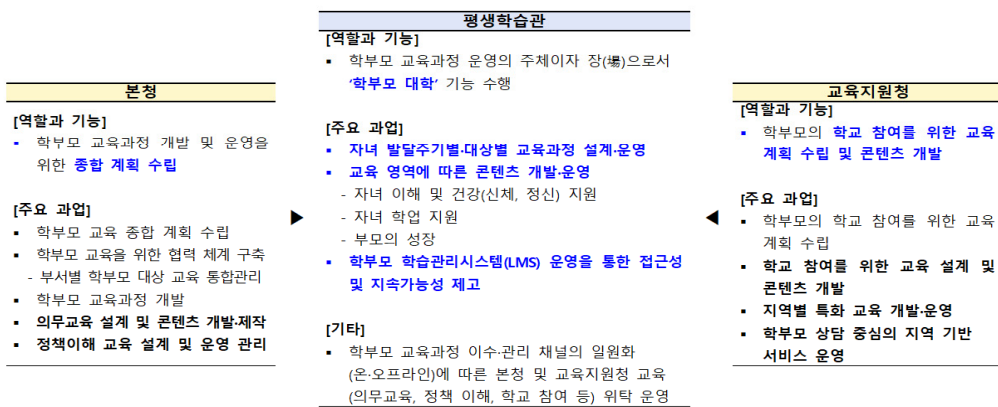
번호	영역별 프로그램(시수) 배정		매우 적절함	적절함	보통임	적절하지 않음	매우 적절하지 않음
	교육 영역	배정 시수					
1	의무교육	7					
2	정책 이해	7					
3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32					
4	자녀 학업 지원	28					
5	학부모의 학교 참여	13					
6	학부모의 성장	5					

[학부모 교육과정(안)에 관한 종합 의견]

다음은 ‘학부모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진 체제’의 개편안입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이어지는 문항에 자문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체제 개편의 주안점]

- 현행 제도인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 중 ‘학부모 교육’ 기능을 강화한 지역 기반 추진 체제 마련
- 주체별(본청,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역할 정립에 따른 중복 교육 삭제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평생학습관 중심의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 채널 일원화를 통한 접근성 및 학습 지속가능성 제고



4. 학부모 교육의 추진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시한 ‘주체별 역할과 기능’ 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평정하여 주시고, 세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절성 평정은 해당란에 v자로 체크

번호	주체별 역할과 기능		매우 적절함	적절함	보통임	적절하지 않음	매우 적절하지 않음
1	본청	학부모 교육 종합 계획 수립					
2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3		의무교육 설계 및 콘텐츠 개발·제작					
4		정책 이해 교육 설계 및 운영 관리					
5	평생 학습관	학부모 교육의 운영 주체로서 ‘학부모 대학’ 기능 수행					
6		3개 교육 영역에 대한 콘텐츠 개발·운영 (자녀 이해 및 건강 지원, 자녀 학습 지원, 부모의 성장)					
7		학부모 학습 통합관리시스템(LMS) 운영					
8	교육 지원청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 설계 및 콘텐츠 개발					
9		지역별 특화 교육 개발·운영					
10		학부모 상담 중심의 지역 기반 서비스 운영					
[자문 의견]							



5. 다음은 부서 협의를 통해 제시된 **‘학부모 교육과정 이수 활성화 방안’**입니다.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평정하여 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절성 평정은 해당란에 v자로 체크

[학부모 교육과정 이수 활성화 방안]						
구분 방안	내용					
학부모교육 운영 우수학교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li> <li>대상: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li> <li>운영: 단위학교별 학부모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받아 상위 50개교에 대한 기관장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상으로 학교 내 읽건쓰 거점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용 도서 구매 비용 지원</li> </ul> </li> <li>효과: 학교 구성원의 관심도 제고 및 홍보 동기 부여</li> </ul>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지표 내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민주적 학교 운영 원리에 기반한 학부모의 교육 역량 함양</li> <li>대상: 결대로자람학교 운영교</li> <li>운영: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시 ‘교육구성원 역량 증진’ 영역을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이수를 노력 등을 평가</li> <li>효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조하는 결대로자람학교 정책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 역량’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 교육 안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li> <li>대상: 단위학교 학부모</li> <li>운영: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학부모 의무교육 운영</li> <li>효과: 학교 참여가 활발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의무교육 이수 문화 확산</li> </ul>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학부모 의무교육 안내 및 접근성 향상</li> <li>구성 1) 학부모 의무교육 안내 2) 의무교육별 학습 자료 3) 온라인 강의 QR 4) 사안별 신고/상단 정보</li> <li>배포 방식: 단위학교 공문 시스템 및 e알리미 등을 활용한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살핌주간 등에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li> </ul> </li> </ul>					
교육과정 기반의 ‘이수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학부모 교육과정 중 의무교육을 포함한 6개 영역에서 일정 강의(시수)를 이수한 경우 별도의 디플로마(diploma) 수여</li> <li>활용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등록하여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2)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교육 이수 증서 발급 3) 교육청 및 직속기관 사업(특강, 프로그램 등) 참여 시 어드밴티지 부여</li> </ul>					
번호	이수 활성화 방안	매우 적절함	적절함	보통임	적절하지 않음	매우 적절하지 않음
1	학부모교육 운영 우수학교 인증제					
2	결대로자람학교 평가 내 ‘학부모 교육 이수 현황’ 반영					
3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학부모 교육 안내-운영 의무화					
4	학부모 의무교육 자료집 배포					
5	교육과정 기반의 ‘이수인증제’					
[자문 의견]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에 관한 종합 의견]
--------------------------

- 의견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우)21554 <a href="http://www.ice.go.kr">http://www.ice.go.kr</a> 032-423-8232
I S B N	978-89-6960-106-3 (비매품)

---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